

군 목 과 지 도 력

Chaplain and Leadership

■ 안광춘 Ahn, Gwang Chun

- 서울신학대학 B.A 및 동 대학원(M.A.)
-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D.MIN.)
- 서울신학대학교 겸임교수
- 성산효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연구



1. 서론

군대는 군목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군목은 장병의 아버지로서 신앙을 지도하며, 전인적 교사로서 그들의 사표가 되며, 전선에 함께 종군하고 숨저가는 장병의 마지막 여정을 위해 기도하는 사도이다. 한국군은 한국 전쟁을 통하여 공산주의와 싸우는 사상전에서 군목이 필요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교계에 군목을 파송해 주기를 요청했고, 한국 교회는 이에 응하였던 것이다. 이제 한국군에 군목이 파송된 지 63년이 된다. 지금까지 군인의 길을 걸은 사람은 남자들이었다.

이제는 여자도 군인의 길을 걷고 있다. 전에는 간호병과가 있었지만 이제는 일반 전투병과 장병으로 여군이 복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녀는 누구나 군에 복무할 수 있다. 그래서 여군목제도도 논의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다. 또한 타종교의 지도자들도 종군하고 있다.

이 논고에서는 군목이 군에서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군목제도와 역사

1) 군목제도의 시작

한국군의 군목제도는 6·25 한국전쟁으로 공산주의를 물리치기 위해 필요했다. 당시 민간 성직자들이 군문을 찾아 장병들의 정신교육과 위문 그리고 예배를 인도해 주었다. 한편 UN군에 종군한 윌리엄 쇼(William Show) 군목과 조지 미카엘 캐롤(George Michael Carrol) 신부가 한국군도 군종제도가 있어야 할 것을 한국정부 요로에 역설해 주었다.¹ 그래서 1950년 12월 21일 이승만 대통령은 각 군에 종군 목사를 두도록 지시하였다. “종군 목사가 각 군에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하루속히 사람을 택하여 들어가게 하라.”²

이 지시에 의하여 육군은 1954년 1월 12일 군종업무를 창설하였으며, 1951년 2월 28일 정식 군종업무를 시작하였다.³ 그리고 공군은 1952년 8월 7일 육군 군목에 의하여 군종업무가 창설되었다. 해군은 1948년 9월 15일 총참모장 손원일 제독의 요청으로 이화여자고등학교 교목이었던 정

¹ 국방부 군종위원회, 《군종약사》, (서울:미문사, 1963.)

² 대비지(대통령 비서실 지시) 국방신 제29호(1950. 12. 21).

³ 육본일반명령 제31호(1951. 2. 7).

달빈 목사를 초빙하여 군목으로 종군케 하였다.⁴ 해군은 해안 경비대 시절부터 군목을 두었고⁵ 1950년 12월 6일 해군본부 작전명령에 의거 정식으로 해군은 군목실을 창설하였다.⁶ 해병대는 1951년 3월 1일 사령부 참모장 김대식 중령이 당시 서울신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현 서울신학대학 교전선) 장창덕 목사를 초빙하여 군종업무를 담당케 하였다. 장창덕 목사는 진해에 피난 와서 해병학교 문관으로 있으면서 군종업무를 개척하였다.⁷

2) 군목제도의 역사적 근거

군목제도는 인류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원시사회는 제정일치(祭政一致) 사회였으므로 전쟁에 출전할 때마다 종교지도자가 제사행위를 통하여 승리를 기원하며 병사들을 격려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옛날 히브리인들은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믿었다.⁸ 구약성경에서 제사장이며 임금인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개선하는 장병을 위로하고 축복하였다.⁹ 구약의 제사장은 전쟁의 승리를 미리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임무를 맡았으며¹⁰ 특별한 의식을 집행하며 하나님의 호의를 입으며 기도로 병사들을 축복하고 격려하였다.¹¹ 그러나 이것은

⁴ 홍은혜, “바다사랑 36년” <재해>36호 병쇄, 8.

⁵ 해안경비법 제7조에 “군목을 둘 수 있다”고 규정.

⁶ 해본작편명, 제 33호.

⁷ 안광춘, 《해군 군종사》 해군본부, 1976, 10.

⁸ 창세기 4: 19-20.

⁹ 사무엘상 14:37.

¹⁰ 김장석, “군선교신학 신학수업을 위한 시도”, (장로회신학대학 목회대학원 학위논문, 1975), 38.

¹¹ 신명기 20: 1-5.

어디까지나 정치형태의 한 구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오늘날 군목의 기원은 5세기경 프랑스 군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¹²

프랑스 군대에서는 영어로 채플린(Chplain, 불어로 Chapelain)이라 불리는 장교가 있었는데 전쟁터에서 ‘거룩한 옷’을 보관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거룩한 옷’에 대한 일화가 다음과 같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¹³ 프랑스의 마틴(Martin, 주후 316-400년)이란 군인이 아민(Amiens) 성 문을 지나가는데 추위에 떨고 있는 걸인을 만나게 되었다. 동정하며 돈을 주려고 주머니를 뒤져보았으나 동전이 한 푼도 없었다. 그는 차고 있던 칼로 자기의 외투를 두 조각으로 잘라서 한 조각은 추위에 떨고 있는 걸인에게 주고 나머지 한 조각은 자기가 걸쳤다. 그날 밤 마틴은 꿈속에서 반조각의 외투를 걸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에 세례를 주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 후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게 되었다. 프랑스 왕들은 그가 죽은 후 그의 외투를 거룩한 성자의 유물로 보존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에 가지고 나아갔다. 그것은 이 외투가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이며, 장병들을 신앙으로 무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고 사기를 크게 양양시켰다. 그리하여 거룩한 옷을 보관하고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곳을 ‘채플’ (Chapel)이라 불렀고, 종교의식을 집행하며 거룩한 옷을 지키는 자를 채플린(Chaplain)이라 부르게 되었다. 마틴이 배운 자비와 동정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군목(Chaplain)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리하여 군목은 위로와 공화로 장병들에게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랑으로 장병들의 신앙을 지도하여 삶과 죽음을 이해하도록 하였다.¹⁴

¹² 김택규, “군목의 본연의 사명과 업무개요”, <군종>46-47집, (1966.7), 84.

¹³ U.S. Army, “The History of The Navy Chaplain”, Corps, Vol. 1(1949), 2.

¹⁴ 안광춘 “군목전선”, <해군>251호(1975. 9), 118.

이와 같은 견해는 제수잇 장군 제임스 레네즈가 북아프리카에서 터키 군을 정벌하는 스페인 장교 주앙 라세르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¹⁵

내가 믿기는 귀하가 이번 정벌에 종교적 지도자를 종군시키면 우리 주님이 공경을 받고 위안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와 좋은 모범으로 설교와 고해를 청취함으로 병자를 돌보고 죽어가는 이를 도와줌으로 이 사람들은 놀라운 선을 행할 것입니다. 그들은 장병들에게 싸워야 할 정당한 동기를 가르쳐주며, 장병들 간의 싸움을 막고 노름을 방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에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전쟁 중에 그들의 임무를 더 잘 성취할 것입니다.

3) 군종업 무의창설 요인

군대의 발전과정에서 장병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야기되는 인간문제가 많아지고, 사상적 갈등, 그리고 월복음모사건 등이 노정되었다. 여기서 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지도자와 애국정신을 무장시켜 줄 전인적 교사가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군인의 정신적 지도를 위하여 장교로서 군목을 임명하고 교회는 군대 안의 선교를 위하여 목사로서 군목을 파송하게 되었다.¹⁶

김일환 국방 차관이 군목의 필요성에 대하여 〈군목월보〉 창간을 축하하며 보낸 “축사”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다.¹⁷

첫째로, 전민족적 수난을 받고 있는 불운의 전쟁을 통하여 조국은 폐허가 되었고, 도덕과 윤리는 여지없이 유린을 당하였고, 모든 사람의 양심은 파괴되었다. 그리스도의 신앙을 통하여 허물어진 양심의 지침과 도덕과 윤리의 재건자가 되라.

둘째로, 사선을 넘어 주야로 삼면의 바다를 응시하며 묵묵히 초계근무에 몰두하는 전우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확고한 사생관을 넣어주어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서만 진실한 삶과 죽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사생관의 명확한 확신이 없어서는 이 전쟁을 완수치 못할 것이다.

셋째로, 오늘날 조국의 평화와 민족의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전우들에게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주어라. 슬픔과 우울에 잠겨 있을 때, 고독할 때, 그리고 심신이 고통을 당할 때, 참 평안과 위로를 주어 환희의 싹을 트게 하는 핵심이 되라.

넷째로, 불의의 적의 총탄에 맞아 병상에서 신음하는 백의용사들에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그리스도의 참된 봉사를 본받아 저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알게 하라.

이와 같이 군목업무에 대한 기대는 대단한 것이었다. 존 엠 알포드(John M. Alford) 제독에 따르면, 군대의 사기를 위해 군목은 중대한 부분을 맡고 있다. 알포드 제독은 인간문제에 있어서 훈련된 지도자인 군목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예상지역의 점검과 그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해 주기를 바랐다.¹⁸ 프레이저(Fraizer) 군목에 의하면, 군대는 군목으로 하여금 타장교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기를 기대한다.¹⁹

¹⁵ 신양섭 “세계의 군종업무”, 〈기독교사상〉15권 2호(1971. 2), 50-51.

¹⁶ 안광춘, 〈해군군종사〉, 8.

¹⁷ 김일환, “창간 축사” 〈군목월보〉1집(1952. 8), 해군본부 군목실, 3.

¹⁸ J. M. Alford, “군종장교의 필요성”, 〈군종〉35집(1962. 12), 25-26.

¹⁹ 이계호, “군종제도의 군사적 의의”, 〈군종〉35집(1952. 12), 36.

3. 군목의 과업(활동)

1968년 해군사관학교 특별간부 후보생 과정을 수료하고 해군군목으로 임관된 필자는 해병도서방어부대(백령도) 군목으로 발령을 받았다. 부임하기 위하여 해병대 사령부 사령관께 임관 및 부임신고를 드렸다. 그때 사령관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기억되는 말이 있다.²⁰

“목사님이 군대 계급장을 달았다고 계급으로 호칭되는 것이 아니라 군목님으로 호칭됩니다. 다만 계급은 봉급을 그 계급과 호봉으로 지급한다는 약속입니다. 좋은 군목으로 장병들 가운데 일해 주시고 목사님이 계셔서 좋은 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군목은 장교로 임관되지만 계급으로 불려지지 않는다. 초창기 촉탁 군목이 중군할 때는 민간인 성직자가 문관으로 복무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부대 영문 출입도 어려웠다. 또한 훈련을 받고 장교로 임관된 후에는 계급으로 호칭되거나 십자가를 가리는 경우도 있었다. 군목은 금색 십자가 금장을 좌편 옷깃에 착용하고, 계급장은 오른쪽 옷깃에 착용한다. 그래서 받은 목사고, 받은 군인으로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목사로 일하는 것이다.

1) 종교활동

군목은 설교자로서 예배를 인도한다.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등 정기적 예배와 출전예배와 승전예배 그리고 장례예배 등 특수한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관한다. 설교는 성경을 본문(Text)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설교해야 한다(골 1:25).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설교하도록 부름받았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

기가 이는 하나님의 경륜을 다 전해 주었다고 하였다(행 20:27).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충성스럽게 설교하는 것이 중요하다.²¹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는 자가 설교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가 호소력을 더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속여서는 안 된다.²² 군목은 설교자로서 겸손해야 한다.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 목사는 “성경은 말합니다(The Bible says)”라고 말씀의 권위로 설교했다. 겸손의 전위(轉位)가 있어야 한다.²³ 스펔전(Spurgeon) 목사는 십자가 정신을 실천하는 정신에서 나온 목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며, 수평적으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설교를 하라고 말했다.²⁴

2) 전인 교육

군목은 병영에서 장병들에게 ‘인격지도교육’을 실시한다. 인격지도교육은 월별로 제목이 주어지지만 군사지식이나 기술을 습득시키는 일반교육이 아니다. 인격지도교육은 원만한 인격 형성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그 사람의 됨됨이, 인간으로서 품격을 갖도록 하는 전인교육이다.²⁵

교육은 ‘만남과 대화’이다.²⁶ 인간은 계속 만남을 갖고, 만남은 항상 너와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떤 관계를 ‘나와 너’가 갖느냐에 따라 인격이 형성된다. 이것은 계속해서 만나고 반복해서 교육하며 자아를 발견하

²¹ John R. W. Stott, 《설교자상》, 문창수 역, (개혁주의 신학협회, 1990), 27.

²² Ibid., 29.

²³ Ibid., 31.

²⁴ 찰스 스펔전(Charles H. Spurgeon), 《찰스 스펔전 목회광맥》, 송삼용 역 (두란노, 2010), 217.

²⁵ 육군본부, 《군종 및 인격지도교육》(1981), 124-126.

²⁶ Henri H. Nouwen, 《새시대의 사목》, 성찬성 역 (성바오로, 1988), 49-50.

²⁰ 해병대 사령관 강기천 대장의 인사말.

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며 수시로 자극해 주는 것이 인격지도교육이며, 전 인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다.²⁷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초청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교육철학이다. 인격지도교육은 예수님의 교육철학이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²⁸

3) 개인 상담

군목은 장병의 개인 신상에 대한 상담과 집단 상담을 실시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생활하는 장병들에게는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 상하복종문제에서 오는 문제점, 명령전달체계에서 오는 문제점, 개인의 고민 등 군대문화에서 오는 많은 문제점을 들어주고, 지도해 주고, 해결해 주는 상담은 매우 중요하다. 윤패된 환경과 억눌린 복종의 요구 속에서 생활하므로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 번뇌, 고민, 우울, 권태, 갈등 등이 언제나 잠복해 있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병영에서 상담자가 있어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상담은 단순히 지시나 문제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하며, 본인(내담자) 스스로 자기 문제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며,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다. 상담자로서 군목은 내담자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끝까지 문제를 들어주며, 공감해 주며, 또다시 만나기를 약속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자주 만남의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며, 조언할 때는 내담자가 긍정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자로서 돕는 것이다.

²⁷ 김요셉,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두란노, 2007) 참고.

²⁸ 육군본부, 《군종 및 인격지도교육》, 124-126 참고.

4) 위로하는 일, 방문하는 일

‘논, 밭에 심겨진 농산물은 농부의 밭소리를 듣고 자란다’ 고 한다. 또한 ‘병영의 장병들은 군목의 군화소리를 듣고 강건해지며, 군목의 기도소리로 영혼의 평안을 갖는다’ 고 한다. 병원의 전상환자 및 일반환자, 격오지, 초소, 작전상황실, 내무반, 함정 등의 장병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문하는 일이 군목이 할 일이다. 교도소, 헌병대 영창, 야전의무실 방문은 귀한 사랑의 섬김이다. 그들은 방문으로 위로를 얻는다. 범법자에게 용서를, 슬픈 자에게 위로를, 방황하는 자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일은 군목의 사역 중에 보람 있는 일이다.

군목의 군화소리는 장병들에게 큰 힘이 되며 병영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져다준다. 군목이 하는 일은 행정 업무까지 통틀어서 군종업무라고 한다. 군종업무는 곧 행정업무이다. 군목은 업무를 계획하고 진행시키며, 참모 간에 협조도 요청하고 실천사항을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휘관을 보좌하는 참모업무도 잘 수행해야 한다.

이제는 각 종파의 지도자들이 함께 군종활동을 하고 있다. 기독교의 목사, 천주교의 신부, 불교의 법사가 함께 생활한다. 여기에 서로 협조하고 이해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는 군종업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부대의 단결과 승리를 위하여 지휘관에게 좋은 의견을 건의하며, 서로 간에 교량 역할을 하는 화해자로서의 역할, 더 나아가 ‘한 알의 썩는 밀알’로 희생할 수 있는 충성하는 군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군목의 지도력

1) 군목의 사도직

군목의 삶은 사랑을 맴도는 삶이다. 군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또한 인간의 사랑을 하나님께 전해야 한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

도록 특히 부름받는 사람이다.

사도직이란 무엇인가? 사도적 사랑(Apostolic Charity)을 가진 사람이다.²⁹ 에밀 브리에르(Emile Briere)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의 의무 수행에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신을 내어놓으며, 하나님과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매순간 노력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부족함을 직·간접으로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다.

사도직을 감당하는 군목은 형제적 사랑(Fraternal Charity)을 가진 사람이다. 다정한 이해심을 가진 군목과 더불어 자신의 좌절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것, 용납될 수 있는 ‘화를 터뜨릴’ 방법을 찾게 하는 것이다.³⁰

심리학에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다. 그러면 정신적 질병도, 정서적 동요에 기인하는 신체적 불편도 적어질 것이라고 한다. 성경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군목들은 형제적 사랑으로 장병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충심으로 남자답게 손을 꼭 잡은 그런 다정한 악수를 할 수 있는 의사소통 시에 접촉이 긴장을 풀어주고, 위축되었거나 괴로운 장병의 긴장을 진정시켜 주며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줄 것이다.³¹

군목의 사도직은 장병을 영적 지도하는 것이다. 영적 지도란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가 발전하도록 돕는 것이다.³²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 라는

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나’는 하나의 피조물임을 깨닫는 것이다. 군목은 영성지도자로서 장병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보며, 그들이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³³ 그래서 장병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군목의 사도직은 말씀과 행동을 함께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장병들의 전인격을 사랑하는 것이다.

2) 군목과 섬김

군목은 섬기는 지도자이다. 하나님은 군목으로 하여금 종의 심정으로 섬기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었다.

해군의 어머니 홍은혜 권사는 시아버지 손정도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하신 교훈 중에서 ‘걸레의 삶’을 살라고 이르신 말씀을 이야기하였다. 걸레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남을 깨끗하게 하는 섬김의 종으로서 조국에 봉사하라는 당부였다. 그리하여 부군 손원일 제독이 초대 해군참모총장이 되었다고 하셨다.³⁴

하나님의 종은 주님의 시중을 드는 것이 본분이다. 요나가 탄 다시스로 가는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 당황하고 있을 때 그는 홀로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선원이 그를 깨워 고향이 어디며,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의 종이요”라고 대답했다.

하나님을 밤낮 모시며 장병들을 섬기는 군목은 종의 심정을 가져야 할 것이다.³⁵ 또한 섬기는 지도자를 ‘목자’로, 한 마리의 양을 극진한 사랑으

²⁹ Emile Briere, 《사제는 사제를 필요로 한다》, 전달수 역 (성모출판사, 1994), 93.

³⁰ Ibid., 52. 형제적 사랑은 보다 높은 기록함을 낳는다. 형제적 사랑은 보다 높은 신체적 건강을 낳는다. 형제적 사랑은 보다 큰 정신적 평화를 낳는다. 형제적 사랑은 기록함, 신체적 건강, 정신적 평화의 성장을 위해 건강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³¹ Ibid., 53.

³² 김한옥, “영성과 이웃 섬김” 《제15회 기독교 학술원 학술대회》, (기독교 학술원, 2011), 7.

³³ William A. Barry & William J. Connolly, 《영적 지도의 실제》, 김창재/김선숙 역 (분도출판사, 1995), 44-45.

³⁴ 홍은혜, 《은혜의 향해》 (토기장이, 2010), 78-79.

로 돌보는 목동의 심정을 가진 군목으로, 선한 목자였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³⁵

군목 스스로가 섬기는 지도자가 되도록 작심하여야 할 것이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군대와 장병들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도 “섬김을 받으려 함도 아니요, 도리어 자기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섬기러 왔노라” 말씀하시고(마 20:26-28) 그 말씀대로 사셨다.³⁶ 예수님의 가르침은 먼저 자기 삶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 가운데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이다. 또한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하셨다.

군목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섬기는 지도자의 두 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발견한다. 첫째, 섬김이다. 섬김은 중심적인 것이며 명령이다. 섬기라고 군목을 세우셨다. 어떻게 섬기는가?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된다. 그분은 종의 완전한 모형이시다. 그분은 자신을 낮추셨고, 자기를 비우셨으며,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빌 2:7-8). 그분은 총처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진짜 종이 되셨다. 둘째, 내어줌이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섬기는 지도자로서 군목은 장병들에게 나누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³⁵ J. Gibbons, 《사제의 길》, 김대성 역 (가톨릭출판사, 1976), 9.

³⁶ 방효익, 《사제로 산다는 것》 (성 바오로, 1997), 87.

³⁷ 오성현, “섬김의 리더십”, 〈서울신학대학보〉 2011. 3. 9일자.

5. 군목과 나라 사랑

군목은 군인의 한 사람으로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다. 군인은 국가의 자유와 독립을 보존하며 모든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는 국민의 일원이다. 참된 군인은 훌륭한 국민이 되는 길임을 깨닫고 맡은 바 임무를 감당한다.³⁸

1) 군인정신

군인정신의 바탕은 애국심이다. 군인정신은 한마디로 군인이 갖추어야 할 이상적 정신자세이다.³⁹ 군인정신의 중요성은 군인의 됴됨이와 그가 속한 군대의 우수성을 드높일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의 승패 모두가 그것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군인정신은 애국심을 바탕으로 군인이 나라와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민과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군인정신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요소이다.

1957년 11월 26일 최초로 제정되고 1976년 9월 17일 개정되어 국방부 훈령 제212호로 공포된 《군인의 길》 전문에서 “우리 국군은 대한민국과 더불어 존재한다”고 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며, 3·1 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의거 및 5·16 혁명의 이념을 계승한 민주공화국인 조국을 지킴을 그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⁴⁰

군인정신의 요소는 명예심, 충성심, 용기, 필승의 신념, 책임감 등이다. 이와 같은 정신을 갖도록 군목은 장병들을 교육하고 기도하여 정신전력으로 승화시키는 일을 한다.

³⁸ ‘국군의 교육이념’

³⁹ ‘군인복무규율’의 군인정신 참조

⁴⁰ 국방부, 〈군인생활수첩 군인의 길 해설〉, 96 참고

2) 정신전력

신념은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마음에 간직한 확고한 믿음과 자신감이다. “쟁취하려고만 하면 승리는 나의 것이 된다”고 믿게 해주기 때문에 기적을 낳는다. 그러므로 “가능하다고 믿는 자는 정복할 수 있다”고 에머슨(Emerson)은 말했다.

정신전력은 군인정신이 기타의 무형적인 요소와 종합하여 나타나는 전투력이다.⁴¹ 정신전력은 신앙에서 온다. 믿음의 군대는 승리한다. 다윗의 군대, 기드온의 군대, 여호수아의 군대는 믿음의 군대였기에 승리하였다.

신앙은 전력이다. 6·25 전쟁 시 통영에 괴뢰군이 내려와서 포진하여 언제 점령할지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해병 1전투단 단장 김성은 대령은 진해함에서 부대원을 함정에 승조시켜 통영으로 향해 중이었다. 김성은 단장은 군함 갑판 포대 아래 엎드려 기도하였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흘렀다. 그는 새벽 5시에 통영 상륙작전을 실시하여 하루 만에 통영을 탈환하고 적을 저지하였으며, 한국 해병대를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외신이 전했다.⁴²

도솔산 전투는 1951년 6월 4일 해병 1연대와 인민군 제5군단 12사단과 32사단이 도솔산을 두고 치른 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해병대 전 장병이 전장에서 함께 기도드리고 도솔산 고지를 점령했다.⁴³

이어서 1951년 8월 29일 중동부 전선 김일성 고지 전투에서도 기도로 승리하였다. 이것은 모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우셔서 승리했다고 장병들은 확신했다.⁴⁴ 이처럼 6·25 전쟁 중에 치른 진동리

전투나 인천상륙작전 그리고 서울 탈환 등의 승리를 가져다준 것은 하나님이었다.

군목은 참호 속에서, 함정 갑판 위에서, 고지 정상에서 기도했다. 신앙의 군대는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조국에 평안을 가져다주었다. 육, 해, 공군에 앞장서는 분은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은 전장에서 기도하는 군목과 함께해 주셨다. 신앙이 전력이며 군목은 기도로 장병을 용사로 만드는 사람이다. 오늘도 모든 군목은 신앙을 통해 장병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온몸을 다해 충성하도록 애국의 혼을 일깨운다. 신앙의 부대는 반드시 승리한다.

6. 결론

군목은 장병의 전인적 교사요, 영성 지도자이다. 부대의 장병들을 위하여 사도직을 감당하며 종으로, 목자로, 청지기로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이다.

필자는 서부 전선 최전방 부대에 초빙되어 6·25 기념 반공강연을 마치고 부대 장병들과 함께 영내 식당에서 점심식사시간을 가졌다. 그때 부대장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 “군목들이 야전군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군목이 부대본부교회에 안주하여 로만칼라가 있는 사복을 입고 목회한다는 것이다. 오늘 부대교회는 머슴교회가 되고 ‘십자가의 도’, 즉 ‘머슴의 도’를 실천하고 전방에 흠어져 있는 예하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을 만나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주는 섬기는 목자의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⁴⁵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서 전우

⁴¹ 육사, 《한국 군인정신》, 육군사관학교(1978), 288.

⁴² “김 부대장의 기도와 통영작전의 대승”, 〈기독신문〉(1951. 7.15 일자).

⁴³ 조인복, 《해병 발전사》(해병대사령부, 1961), 73.

⁴⁴ 박동열, “나의 신앙체험” 〈불기둥〉 4호, (1956. 3), 26-27.

⁴⁵ 송명선, 《머슴교회》(두란노, 2007), 99.

간에 서로 귀히 여기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군대병영을 만들어주었으면 한다.

6·25전쟁 당시 UN군이 홍남부두에서 철수할 때 피난민들을 마리너스호에 승선시켜 피난시키게 되었다.⁴⁶ 그때 연합군 군목이었던 옥호열 군목이 북에 남게 될 교인들을 걱정하며 함흥시내의 교회들을 찾았으나 교회 문은 잠기고 불은 켜지지 않았다. 그런데 함흥시 광화리 교회만 불이 밝혀져 있어 문을 두드리고 백여 명의 교인을 데리고 홍남부두에 와서 1950년 12월 19일 오후 4시, 해군 수송함(L.S.T)에 태워 거제도로 피난시켜 주었다. 그들이 거제도 성내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다가 서울 수복 후 교인 전체가 상경하여 서울 충무로에 세운 교회가 충무로성결교회이며, 지금 강남에 있는 충무교회이다.⁴⁷ 서울 충무로성결교회는 미8군 공병부대 라스나 군목이 옥호열 군목에 의하여 함흥에서 피난 온 교인들인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하여 건물을 세워준 교회이다.

군목은 출애굽 여정의 인도자이다. 군목의 발걸음이 닿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 군목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군목이 머무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진다.

⁴⁶ 빌 길버트(Bill Gilbert), 《기적의 배》, 안재철 역 (자운각, 2004) 참고.

⁴⁷ 백수복 편, 〈충무교회 50년사〉 (충무교회, 2000), 245.

전쟁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The War: A Christian Ethical Perspective

■ 김동연 Kim, Dong Yun

■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Th.M.)

■ 연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M.A.)

■ 육군 리더십센터 상담학교관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1. 서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결코 평화로운 세계가 아니다. 역사가 기록된 이래 오늘날보다 더 전쟁이 창궐했던 때는 없었다. 이런 전쟁에서 죽는 사람의 80%가 시민이다. 1700년 이래 전쟁의 빈도와 그 파괴성은 계속 심해져 왔으며, 20세기에 와서는 극에 달해 전쟁으로 인한 사망 대부분이 20세기에 일어난 것이다(90%). 이제는 더 이상 시민과 전투군을 구분할 수 없다. 현대전이란 기본적으로 무차별한 것이 되었다.

클라우제비츠에 의하면, 전쟁에서는 힘의 극대 사용과 폭력 적용 때문

에 도덕적 힘이 작용할 수 없으며, 인도주의자들의 이상도 발효되기 힘들다고 한다. 따라서 정당전쟁론은 최후수단으로 전쟁을 허용하지만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그 자체로 수행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의 표준을 내세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려는 것이며, 전쟁을 하는 가운데 내세운 표준은 지켜지기 힘들다는 것이다.¹⁾

그러므로 전쟁이 있는 한 평화는 없다. 물론 전쟁이 없는 것만이 평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에는 전쟁이 없어야 하며 바뀌 말하면 전쟁이 있는 곳이나 전쟁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는 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평화를 추구하는 곳에서는 전쟁이 억제되어야 하고, 가능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불안들은 장차 있을지도 모를 원자전에 집중하고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1945년 이래 1982년 12월 까지 계속 실시된 핵 실험은 총 1,375개에 달한다. 1,200개는 미국과 소련이 한 것이고, 나머지 175개는 프랑스, 영국, 중국, 인도 등에 의한 것이었다. 1963년 이래 대기 중에서의 핵 실험은 금지되었다. 그러나 지하 핵 실험은 계속되었다. 이렇듯 모든 책임 있는 사람들이 금지조항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 전면적인 핵 전쟁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훑어보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핵 전쟁이 일어나면 남반구의 많은 도시들이 파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반구에서도 사실상 중요한 모든 도시가 파괴될 것이다. 수백 만이 폭발과 화염폭풍으로 죽을 것이다. 방사능 낙진은 더 많은 사람들을 서서히 죽게 할 것이다. 방대한 지역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되며, 시체에 접촉했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곤충들이 질병을 급속히 퍼뜨릴 것이다. 오존층 또한 심각한 파괴를 입을 것이며, 핵 겨울로 지구의 기온은

1) 김두식, “칼을 쳐서 보습을”, (뉴스앤조이), (2002).

급격히 내려가고, 지구 전체 생물권이 붕괴될 것이다. 계속해서 엄청난 농작물이 수확에 실패할 것이고, 기근이 지구를 휩쓸 것이다. 오랜 기간 계속되는 생태계 변화의 영향으로 생활상태는 영구히 바뀔지도 모른다. 이런 엄청난 상황을 완전히 표현해 줄 적당한 단어가 없을 지경이다. 핵 전쟁은 일종의 마지막 사건이 될 것이다.

오늘날 미·소 간의 관계가 진전이 되고, 핵무기의 일부가 소거되고, 다양한 지역분쟁이 다소 희망적인 분위기가 되는 등 최근 몇 년 동안에 지리적, 정치적 상황에 있어서 뜻깊고도 희망적인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은 훨씬 불안정하고 위험하다. 현재 핵무기 비축문제는 여전히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계속 폭탄이라는 유령과 ‘아마겟돈’에서 피에 젖은 최후 전쟁이 있으리라는 망령에 시달리며 살게 한다. 현재의 5만 5천 개의 핵무기가 갖고 있는 파괴력이 1만 6천 메가톤(이는 TNT 160억 톤에 상당하는 것이다)인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이제 막 자멸하려는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다. 게다가 1982년 이래 두 초강국은 이미 막대한 양의 핵무기를 비축해 왔으며, 일격에 이길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지금도 적극적으로 시험에 시험을 거듭하고 있다. 다른 핵무기 소유국들도 자기네 병기고에 넣을 새로운 무기들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 우연히 - 사람이 잘못하거나 기술적인 문제로 - 핵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항상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핵 전쟁의 가능성도 간과될 수 없으며 어떠한 핵 전쟁도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 분쟁 문제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오늘날은 역사의 그 어떤 때보다 많은 전쟁이 창궐하고 있다. 이 분쟁들은 인종적, 종족적, 부족적, 종교적 혹은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며, 단일민족 국가들 내부에서나, 지역적으로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어떤 곳에서는 군대가 그 나라의 지배종족 출신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힘을 가진 정부가 그 나라 안의 다른 종족들을 없애기 위해 이 군대를 이용한다.

전쟁은 세계의 군비문제가 심각하게 작용한다. 전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군비는 우리 생각을 넘어서고 있다. 이 비용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 이 비용은 정부와 직결되어 있는 강력한 군 산업시설과 관련되어 있다. 통계에 의하면, 미화로 1백 80만 달러나 되는 엄청난 돈이 매분마다 전세계의 군비로 쓰이고 있으며, 이 수치는 최소한 지난 25년간 끊임없이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그에 더해서 막대한 양의 돈이 새로운 형태의 화학전 및 세균전 개발을 위해 투입되었다. 이 모든 비용은 단순히 어마어마한 재정의 낭비가 될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수의 불평등 위에 세워진 제국적 구조를 지탱해 주고 있다. 이 구조 안에서 세계 인구 중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세계 총생산량 중 극히 일부를 나눠 가지려 서로 싸워야 하는 반면, 부유한 나라와 그 국민들은 더욱더 부자가 된다. 한편 오늘날 제3세계의 국방예산은 1960년보다 7배나 올랐다.²

이러한 전쟁과 핵 위협의 시대에서 전쟁이라는 말 앞에 어떤 미사여구를 붙인 전쟁도 비기독교적이다. 특히 핵시대인 오늘에는 더욱 그러하다. 전쟁은 그 자체가 평화를 깨는 폭력이다. 예장 합동 측의 <기독신보>는 세계 100여 개국 400여 도시에서 열린 ‘국제반전평화의 날’ 시위를 보도하면서 “어떤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누구와의 전쟁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이고, 악은 선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말했다.³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전쟁관이다. 만일 그런 전쟁관이 옳다면, 6·25전쟁 시 남한은 이북의 침입에 손을 들고 있어야 했고 미군의 인천상륙작전도 없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남은 벌써 공산화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세계 적화(赤化)의 꿈을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자들만을 이롭게 하는 생각이다. 우리는 정당성이 있는

² 폴 마샬, 《정의로운 정치》 진웅희 역 (IVP, 1997).

³ <기독신보>, 2003. 2. 19, p. 1.

전쟁이 있다고 본다. 국가가 보유하는 군대는 그것 때문에 존재해야 한다. 오늘날의 전쟁들은 이런 차원에서 판단되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마치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같이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2. 본론

1) 전쟁이란 무엇인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였던 전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여러 가지로 규정되었다. 서구에서 전쟁론의 대가라 하는 칼 폰 클라우제비츠는 자신의 기념비적인 저서 《전쟁론》(On War)에서 전쟁을 “적으로 하여금 아군 측의 의지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힘의 행동”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클라우제비츠에게 있어서 전쟁은 ‘국가 정책의 연장’이었고, 이는 국가의 외교와 함께 국익을 증대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이처럼 전쟁을 정치의 연장으로 본 전쟁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는 서구를 전쟁의 빈발과 비인간적 대량 인명 살상과 파괴로 이끄는 요인이 되었는데도 모른다. 그러나 고대로부터 내려온 동양적인 전쟁술의 고전인 《손자병법》에서는 전쟁을 결코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손자에 의하면, 전쟁은 군중의 생사가 결정되는 분기점이자 나라의 존망과 관련된 것이므로 전쟁은 차선이었으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최선으로 여겼다. 아울러 전쟁은 속임수라고 보면서 전투원의 섬멸을 통한 무모한 전승보다는 상대의 교전 의지의 마비를 목표로 한 양동, 심리전, 기습, 포위, 차단, 우회 등이 전쟁의 기술로 자주 사용되었다.

2) 전쟁의 섭리적 이중성

그러나 전쟁의 개념이 어떠한 현상적인 면에서의 전쟁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대규모적 살인과 장애의 발생에 다름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국

가 사이의 의지의 격돌과 신체의 마모와 손상을 보며, 피해 가족의 절규와 전투원 간의 윤리의 망실, 물질문명의 손상과 무형문화의 파괴를 발견한다. 전쟁은 불가피하게 대규모의 살상과 파괴이다. 그러나 국가는 이것을 감추기 위해 전쟁을 미화시켜 왔다. 대량 살상무기인 전폭기를 ‘자유의 투사’라고, 자살특공대를 ‘가미가제’ (神風)로, 그리고 러시아와 독일군 6천 명이 한꺼번에 죽은 탄넨베르그의 대회전을 ‘추수일’이라고 핵미사일을 아기사슴 밤비(bambi)로 수식하였다.⁴

국가의 미화와 수식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 대한 훼손’이다. 이는 “살인하지 말라”(출 20:13; 신 5:17; 마 5:21)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인간의 윤리적 반역이다. 그러나 지혜자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하여 죽이고, 헐며, 찢고, 미워하며 전쟁할 때가 있다(전 3:1-8)고 말하면서 이 비극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전 3:11)고 말하였다. 실제로 하나님은 용사가 되어서 전쟁에서 직접 싸우시고, 혹은 용사들을 세워서 전쟁터에 보내심으로 전쟁에 간접적으로 개입하셨다. 그는 친히 이집트의 강군을 격파하시고 여리고와 아이 성의 정복전쟁에 앞서 가셨으며, 산헤립의 18만 5천의 군대를 자신의 천사들로 일시에 섬멸하셨다.

전쟁은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역사 운영 방식이다. 하나님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눈 곳간과 우박 창고를 예비(욥 38:22-23)하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시며 처벌하시기를 위함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지상에 세우시고 장군과 군벌과 정복자를 통하여 새로운 문명을 후원하여 세우게 하신다. 전쟁을 통한 한 민족사의 종결과 새 역사와 문명의 발흥은 필

⁴ 마틴 로이드 존스, 《왜 하나님은 전쟁을 허용하실까》, 박영옥 역 (목회자료사, 1991), 22-25.

요약을 사용하여 자신의 통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적 이중성이다.

3) 전쟁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

인류는 일찍부터 많은 전쟁을 치러 왔다. 영토의 확장이나 경제적 동거나 지배권을 위한 전쟁으로부터 종교와 이념의 실현을 위한 전쟁까지 인류 역사는 다양한 전쟁을 경험하였다. 특히 20세기 초엽과 중엽에 인류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라는 참혹한 전쟁을 경험했다. 제1, 2차 세계대전으로 전세계에서 7천8백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다.⁵ 전쟁의 참혹한 결과는 말할 것도 없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인류는 원자폭탄을 비롯하여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로 인해 심각한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 전쟁은 참혹한 일이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전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

(1) 정당전쟁 이론

성경은 전쟁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는 전쟁과 관련하여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첫째로, 우리는 국가 혹은 정부의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정부의 권세를 인정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 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요 19:11). 사도 바울도 국가와 통치자들의 권세를 인정하고 거기에 복종할 것을 교훈하였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

⁵ 최석, “전쟁”, 《동아 세계 대백과사전》, 24권, 481.

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롬 13:1-4).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딤후 3:1). 사도 베드로도 교훈하기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총독에게 하라”(벧전 2:13-14)고 하였다.⁶

국가나 정부는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로 주신 기관이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의 질서와 평안을 위해 통치자들에게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옛날 헬라 철학자 플라톤의 생각대로, 국가는 백성들을 보살피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백성들은 자기 나라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물론 자기 나라에 불만족한 자는 기회가 된다면 다른 나라로 이민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나 정부는 사회의 혼란을 막는 도구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악한 정부라도 무정부(無政府)보다 낫다는 말은 일리가 있다. 우리는 국가 혹은 정부의 역할과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

물론 국가나 정부가 하나님의 뜻에 명백히 어긋나는 악한 명령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명령에 복종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더 높고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그런 예들이 많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고 있었을 때,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

을 두려워하여 남자 아이가 나면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 아이를 살렸다(출 1:17, 21).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하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복종치 않았다(단 3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유대인 공회의 명령에 복종치 않았다(행 4:18-20).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은 국민으로서 국가와 정부에 복종해야 한다.

둘째로, 군인은 결코 나쁜 직업이 아니고 건강한 군인이 가능하며 세속 국가에서 군대 조직은 필요하다. 세례 요한은 군대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단지 군인들에게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誣訴, 거짓되이 비난하지 말고 받는 요(料, 봉급)를 죽한 줄로 알라고 말했다(눅 3:14). 예수께서는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위해 간구한 한 백부장이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증거하셨다(마 8:5-10). 성경은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고넬료라는 백부장에 대해 증거하며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천사의 증언을 기록하였다(행 10:2, 4). 또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로마 총독 베스도의 심문을 받았을 때,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에게 호소하면서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행 25:8-11). 군대는 악한 조직체가 아니고 사회질서와 평안을 위해 필요한 조직체이다.

셋째로, 정당한 전쟁은 인정되어야 한다. 정당한 전쟁이란 이성과 양심에 비추어 정당성을 가지는 전쟁을 말한다. 한 국가가 상대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자기 나라와 그 국민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행하는 정당 방위적 전쟁이나, 또는 다른 나라를 부당하게 침략했거나 악한 테러를 일삼는 나라에 대해 여러 나라들이 연합하여 응징하는 전쟁 등은 정당한 전쟁이다. 국가가 이러한 정당한 전쟁을 수행하려 할 때 모든 국민은 그 전쟁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⁶ 프란시스 웨퍼, 《기독교 선언》, 김정훈 역 (보이스사, 1982), 28-33.

성경은 공의의 응징에 대해 가르친다. 이것은 국가가 행하는 사형의 정당성에서 확인된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창 9:6). 또한 성경은 정당 방위를 옹호한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니” (출 22:2). 아마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겁 없는 자는 검을 사라고 말씀하셨다(눅 22:36). 아브람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행한 전쟁은 이런 전쟁이었다 (창 14장). 또 유다 왕 아비야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침공한 이스라엘 군대를 쳐서 패하게 하셨고(대하 13:15-16), 여호사밧 때에도 침략한 이방 나라를 패배케 하셨다(대하 20:22-23, 29).

물론 가능한 한 전쟁을 피하는 것은 선한 일이므로 전쟁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쟁은 최후의 수단일 뿐이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것인 적군에게서 빼앗을 것을 먹을지니라” (신 20:10-14). 이와 같이 합법적 전쟁이라 할지라도 포로들이나 여성과 어린이의 학대나 민간인 살상 등을 피해야 하며, 특히 오늘날 화학 무기, 생물학 무기,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의 사용은 금해야 할 것이다.⁷

넷째로, 개인적 보복과 공적 보복은 구별되어야 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의 교훈(마 5:38-44)이나 원수를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사

도 바울의 교훈(롬 12:19-21)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개인적 보복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주님 자신이나 스테반의 마지막 기도에서 볼 수 있듯이(눅 23:34; 행 7:60) 상대방의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의 동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이 사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전쟁을 부정하는 구절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개인적인 보복적 살인은 허용되지 않으나 공적인 사형 집행이 정당하듯이, 국가는 이성과 양심에 비추어 정당성을 가지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장로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조 2항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정당하다고 본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의 관리들의 직분에 부름을 받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며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그것을 수행함에 있어 그들은 각 국가의 건전한 법들에 따라 특히 경건과 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하므로 그 목적을 위해 지금 신약 아래서도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 합법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정당 전쟁론의 실제 사례 - 미가와 단 지파

정당 전쟁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기독교 평화주의는 구약을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잠정적 제안은 이론적으로 정당 전쟁론이 더 일관성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평화주의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진정한 정당 전쟁론은 현실적으로 평화주의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찾아볼 수 있을까. 사사기 17장의 미가 이야기와 18장의 단 지파의 이주 이야기를 통해 실제적 사례를 살펴보자.

사사기 17장에 미가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어머니의 은을 훔쳤던 미가는 어느 날 어머니가 은을 훔친 자를 저주하는 말을 듣게 된다. 그후 미가

⁷ 스티븐 모트, 《복음과 새로운 사회》, 이문장 역 (대장간, 1992.) 134-151.

는 자신이 어머니의 은을 훔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은을 어머니께 돌려주었다.

은을 훔친 사람을 저주했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도둑이었음을 알게 되자 말을 바꾸어 아들을 위해 하나님의 복을 빌어준다. 그리고 되찾은 은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자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다는 것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미가는 그렇게 만들어진 신상을 신당에 모시고,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후 거주할 곳을 찾아 떠돌던 레위인이 미가의 집을 찾아온다. 미가는 그가 레위인임을 알고, 자신의 집을 위해 제사장이 될 것을 제안한다. 레위인은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미가의 집을 위한 제사장이 되었다. 미가는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미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인가. 그의 신당에는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신상이 여전히 있었다.

사사기 18장은 단 지파의 이주에 관한 내용이다. 하나님께 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긴 단 지파는 살 곳을 찾아 '라이스'라는 지역을 정탐하러 갔다. 라이스 지역을 살펴보러 갔던 정탐꾼들은 우연히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되고, 그곳에서 레위인 제사장을 만나게 된다. 이들은 나중에 무장한 육백 명의 단 지파와 함께 미가의 집을 찾아와 레위인에게 한 집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더 큰 지파의 제사장이 될 것을 제안한다. 레위인은 내심 기뻐하며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미가의 신상을 들고 단 지파와 함께 라이스로 간다. 단 지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라이스 땅을 주셨다고 확신하며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을 죽이고 그곳에 자신들의 성읍을 세운다.

단 지파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명목 아래 평화롭게 살던 라이스 사람

들을 멸절하고 그 땅을 차지했다. 단 지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라이스 땅을 자신들에게 주셨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신 이유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가나안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신명기 7·8장에서는 만일 이스라엘이 가나안처럼 살면 그들도 망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라이스의 죄악에 대한 언급이 사사기에 없는 것으로 보아 라이스는 심판과 정복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었다.⁸

우리는 사사기 17장과 18장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오용했던 사례를 살펴보았다.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위해 은을 거룩하게 바치자고 했지만, 결국 미가의 이름을 높이는 신상을 만들었다. 레위인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신앙적인 말로 포장했다.

이야기를 종합하면 사사기 17장과 18장은 명목상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부르짖던 이스라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사기 읽기를 통해 미가, 레위인, 단 지파가 얼마나 엉터리였고 자신들의 일과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했는지 알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삶에도 비슷하게 다가오는 점이 많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은 없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 성서의 평화주의 이론

① 구약성서에서의 샬롬(Shalom)과 평화사상

구약성서에서 평화의 의미로 쓰인 히브리어 '샬롬(Shalom)'은 포괄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다. 명사 '샬롬'은 성경에서 287회 사용되

⁸ 오스카 쿨만, 《국가와 하나님 나라》, 민중기 역(여수문, 1996.) 215-229.

었고, 여기서 파생된 동사는 ‘샬람’으로 ‘평화롭게 하다’, ‘평화롭다’이다. 명사 샬롬은 ‘안전하게 하다’, ‘끝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 ‘끝마치다’ 등의 여러 형태로 쓰이는 동사형 ‘샬렘’으로부터 파생되었다. 샬롬이란 말이 평화란 뜻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을 때 그 말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본래 바라보았던 것은 총체성, 연합, 완전성, 충만성이 가득한 세상 혹은 인간사회의 상황이었다. 그래서 샬롬의 일차적인 의미는 ‘어떤 유기체나 인간 공동체, 민족, 가족 등이 손상되지 않고 온전하고 완전하며 안전하게 존재하는 것’을 뜻한다. 더 나아가 샬롬은 전쟁이 중단된 상태가 아니라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하여 획득되고 유지되는 것으로 전쟁에서의 승리 자체를 의미하였다.⁹

샬롬은 공동체적인 조화로운 삶을 즐겁고 효과 있게 하는 모든 원천들과 요인들을 가리킨다. 샬롬은 위협의 한가운데서 존재하는 평안이며, 전쟁과 한발과 맹수들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이다. 그 평안은 행복한 날에 느끼는 목가적 평안이 아니다. 사람들이 불안에 항상 직면하고, 생존을 위한 투쟁과 시련을 겪는 가운데서 얻는 물질적, 육체적, 역사적 평안이며, 초목과 열매와 원수들 가운데서 체험되는 ‘구원’이다.

샬롬은 또한 연대적인 평안이다. 그 평안은 모든 공동체, 다시 말하면 소년이나 노인, 부자나 빈자, 힘있는 자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안전과 번영이다. 우리는 샬롬 안에서 모두 하나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 앞에 함께 서 있으며 그 삶의 선물을 함께 받아야 한다. 샬롬은 단 한 사람도 결코 소외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을 감싸는 공동체에 존재하는 것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와 통일”이다.¹⁰

구약성서에서 평화는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소유하는 ‘총체의

상태’ 또는 ‘완전함의 상태’로 개인의 건강으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의 경제적 번창과 정치적 안정까지도 포함하는 사회 지향적인 정치적 대망이다. 그러나 구약의 샬롬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종교적, 전승사적으로 해석된 사상을 포함하고 있는데 구약성서의 평화사상은 다음과 같이 고찰할 수 있다.

첫째, 샬롬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종교적 성격을 띤 것으로 히브리인들에게서 샬롬은 일종의 종교적 개념이었다. 샬롬은 결코 인간적 성취를 통하여 얻어지는 그 어떤 존재론적 상태가 아닌 야웨 하나님과의 특수한 관계의 현실 안에서 이해된 개념이었다. 그래서 샬롬은 야웨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야웨는 평화이시다(사 6:24). 야웨가 평화의 창시자이시며 평화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샬롬을 주시며 완성하신다(시 29:11, 35:27; 욥 25:2; 민 6:26). 샬롬은 야웨 하나님이 그의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낸 구원사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하나님의 평화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써 비로소 이스라엘 안에서 형성된 개념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인은 평화를 야웨의 선물로 이해하였다.

둘째, 평화는 정의와 연결되어 있다. 즉 정의로운 평화이다. 정의는 하나님의 평화의 전제이며 내용이다. 사회정의를 실현되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 이 시편 기자는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춘다는 시적 형식으로 정의와 평화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말한다(시 85:10-13).

예언자 이사야는 평화는 정의의 결과라고 말한다. 정의는 평화를 가져온다(사 32:17). 이사야는 평화로 다스려지고 정의가 거닐며(사 61:3), 평화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고 정의가 바다 물결처럼 넘실거리는(사 48:18) 세계를 말한다. 그런데 정의와 공의가 실행될 때, 억눌리고 박탈당한 자들이 힘과 존엄성을 얻게 되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 즉 샬롬의 수립이 이루어진다. 공평과 의의 귀결이 샬롬이다. 곧 기쁨과 평안의 안식이 지속된다.

⁹ 프란츠 알트, 《산상설교의 정치학》, 남정우 역(보리, 1988.) 17-20.

¹⁰ 알란 크라이더, 《그리스도의 길》, 한화룡 역(IVP, 1992.) 29.

그러나 불평등과 압제는 잠시도 평화로울 수 없는 혼란과 불안을 필연적으로 초래한다. 그러므로 평화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 빼앗긴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다.¹¹

셋째, 평화는 관계적 개념이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자연과 자연, 하나님과 자연이 바른 관계를 지키며 살아갈 때, 상호 친교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통치자이며, 관리인이다. 인간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자연의 대리자이며, 자연의 관리자인 인간의 사명은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고 유지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의하면, 이런 책임적 존재인 인간의 타락은 평화를 파괴시켰는데 그것은 곧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동물의 관계의 파괴였다.

구약에서 하나님, 인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는 계약의 관계이다. 그러므로 구약성서에서의 샬롬이라는 윤리적 용어는 계약관계에서 유출된 것이다. 이 계약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평화의 계약’ (겔 34:25-31)이며, 그 관계에서의 신실함, 곧 정의롭고 신실하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시키는 그런 사립의 친구관계가 샬롬을 가져다준다.¹²

넷째, 구약의 평화사상은 미래 지향적 기다림이다. 이것은 메시아적인 기다림이며, 평화에 대한 종말론적 희망을 말한다(사 2:2-4; 미 4:1-3). 미가는 “하나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미 4:3-4)라고 했다. 그리고 메시아는 궁극적

인 평화에 대한 보증이 되신다(사 9:1-6, 11:1; 미 5:1). 이사야에 의하면, 평화의 왕 메시아는 정의를 구현함으로 평화를 성취한다. “우리를 위하여 태어날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시는 아드님, 그 어깨에는 주권이 메어지겠고 그 이름은 탁월한 경륜가, 용사이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 다윗의 왕좌에 앉아 주권을 행사하여 그 국권을 강대하게 하고 끝없는 평화를 이루며 그 나라를 법과 정의 위에 굳게 세울 것입니다”(사 9:5-6).

다섯째, 구약의 평화사상은 실천적 개념이다. 평화의 현실은 야웨의 사랑과 진실이 화평을 이루어 구현되는 현실, 이른바 야웨의 임재와 거주하심이 인간의 응답과 결단을 통하여 보유되는 그 현실이며, 평화는 야웨의 사랑과 진실을 모방함으로써 카오스(무질서)와 소외를 근원적으로 해소해 가는 실천이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규정된 직분과 창조의 질서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책임적 존재로 다른 생명체와 함께 동료로 살아간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의 윤리는 야웨와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되었던 ‘평화의 계약’ (겔 37:26; 사 54:10)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구현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구약의 ‘샬롬’은 갈등과 적대관계가 우리 안에 생기지 않도록 야웨 하나님의 유일한 주권을 확립해 가는 사회구조, 이른바 야웨의 평화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운동과 상응한다.¹³

② 신약성서에서의 ‘에이레네(eirene)’와 평화사상

신약성서에서는 평화라는 말이 희랍어 ‘에이레네(eirene)’로 사용되었다. ‘에이레네’는 본래 세속 그리스어로는 전쟁의 반대 상태 내지 전쟁의 종식을 뜻한다. 평화는 질서와 법이 유지되는 상태이며, 여기서 복지가

¹¹ 자크 엘룰, 《무정부와 기독교》, 박건택 역 (개신교신학연구소 1994.) 139.

¹² 양승훈, 《기독교적 세계관》 (CUP, 2000.) 33-8.

¹³ Ibid. 87-9.

비롯된다. 그래서 세속 그리스어로서의 에이레네 개념은 전쟁의 지속 상태에서 하나의 막간으로서 이해된 사건들의 상태로, 평화의 시간 혹은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며 이것은 본래 휴전을 뜻한다.

신약성서에서 ‘에이레네’는 모두 91회 나오는데 복음서에만 24회 사용되었다. 그러나 ‘에이레네’는 신약성서에서 그 의미의 폭이 세속 그리스어보다 더 광범위한데, 그 이유는 그 단어가 기독교 신앙과 경험의 배경 속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이며, 또 한편으로는 히브리어 살롬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약성서의 ‘에이레네’ 개념은 정리하기가 어렵다. 신약성서의 기록 자체가 서기 50년에서 150년 사이에 기록되었는데 이때 기독교가 부딪쳐야 했던 정치적 상황이나 문제들에서 중요한 변화를 찾아 내기가 쉬운 것이 아니고 당시 로마제국 자체가 충돌이 없는 로마의 평화(Pax)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신약성서의 초대교회 공동체는 고대 이스라엘과는 달리 그 스스로의 역사를 갖지 않았고, 로마제국 안에서 유대교 내의 소수 종파주의자로 생각되어 정치적 힘도 없는 인종적, 종교적 소수자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이레네’의 개념은 구약성서의 ‘살롬’과는 달리 그 개념의 전승사적 고찰은 할 수 없으며, 신약성서의 ‘에이레네’ 사용의 출발, 목표가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빛에서부터 개념이 파악되어야 한다.

신약성서에서 평화 사상은 그리스도의 평화(골 3:15)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선물(롬 1:7; 고전 1:3)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대 속에서 획득되고 유지된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평화요, 평화의 왕으로서 왔다(히 7:2). 예수가 탄생하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의 평화”(눅 2:14)라고 천사들이 예수의 세상에 오심을 평화로 규정했다.

신약성서에서 평화는 전쟁의 반대로 이해되고(눅 14:32; 행 12:20), 외적

인 안전(눅 11:21), 무질서의 반대 상태(고전 14:33), 사람들 사이의 화해(행 7:26; 갈 5:22; 엡 4:2), 메시아적 구원 개념으로 이해된다(눅 1:79, 2:14, 19:42). 그렇지만 핵심적으로 신약성서의 평화사상은 화해와 연관되는데 바로 그리스도는 화해의 사건이라는 것이다(엡 2:14).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헐고 평화를 가져온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롬 5:1). 그러므로 신약성서에 나타난 평화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사이며, 인간의 종말론적 구원을 의미한다.

이런 인간과 세상의 구원 상태로서의 평화는 인간 상호관계의 새 질서를 포함한다. 따라서 공동체는 평화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전 7:15).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가 선포되게 하신 후, 인간은 평화의 수립자가 되었다(마 5:9). 하나님의 통치는 의와 평화이며(롬 4:17), 그것은 인간들 사이의 화해로서의 평화를 내포한다.¹⁴

결론적으로 성서에서의 평화사상은 정의로운 평화이다. 이 정의로운 평화는 공동체 안에서 인간이 행해야 하는 하나의 실천이다. 그리고 이 평화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물이며 구원인 동시에 예수 자신이 평화이며, 평화의 수여자이고, 화해로서의 평화이다.

(3) 오늘날의 평화사상

21세기를 맞아 인류의 과제는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일이다. 미국의 시인 휘트먼(Whitman)은 “평화는 언제나 아름답다”고 했다. 평화는 인류 모두의 염원이다. 우리는 평화로운 마음, 평화로운 가정, 평화로운 사회, 평화로운 국가, 평화로운 인류, 평화로운 세계를 희망한다. 세계의 역사는 전쟁의 점철하며 평화 갈망의 역사다. 지난 20세기에 세계는 두 번

¹⁴ 박건택, “자크 엘룰 연구” (충신대학신학대학원, 1995.) 29-30.

의 세계대전을 통하여 수천만 명의 희생자를 냈다. 전쟁을 없애기 위한 전쟁이라는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나서 20년 후 역사상 가장 큰 희생을 치른 제2차 세계대전을 겪었다. 새로운 세기는 과연 평화의 세기가 될 것인가¹⁵.

기독교에서 평화는 성서적 복음 선포의 중심주제이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 내용이다. 기독교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히 7:2). 평화란 무엇인가. 오늘날 평화연구에서 평화의 개념을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데 그것은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다. 소극적 의미의 평화란 전쟁의 부재, 곧 전쟁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더 나아가 소극적 의미의 평화는 폭력, 궁핍, 부자유, 불안이 없는 상태로 규정할 수 있다.

적극적 의미의 평화는 사회정의가 행해지고 있는 상태, 사회정의의 현존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삶을 위해 능력과 수단이 균등하게 분배되어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상태로 적극적 의미의 평화가 규정된다. 기독교의 평화개념은 소극적, 적극적 평화개념을 연결시키면서 정의의 강조를 통하여 적극적 평화개념을 우선시킨다.

기독교의 평화는 정의로운 평화다.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 시편 기자는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춘다는 시적 형식으로 말함으로써 정의가 평화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시 85:10). 평화는 정의의 결과다(사 32:17). 정의가 평화를 창조한다. 또 하나 강조할 것은 기독교의 평화는 주어진 상태가 아니라 실현되어가는 과정이다. 평화는 만들어가는 것이다. 교회는 평화를 건설해가는 평화수립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증언하고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만

¹⁵ K. Barth, *Ethics*, trans., G. W. Bromiley (Vail-Ballov Press, 1981.) 34-5.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셨다(마 5:9). 평화를 실천하는 것이 오늘 기독교인과 교회에 맡겨진 책임이며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그러면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의 정치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폭력의 거절이다.¹⁶ 존 하워드 요더(John Howard Yoder)는 예수의 갯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전통적인 해석과는 달리 최후의 폭력의 거절로 이해한다. 그가 피하고자 한 잔의 의미는 처음부터 그를 유혹했던 메시아적 폭력을 거절하는 것이다. 사복음서 모두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다는 것을 보고한다. 요한은 베드로가 칼을 사용하자 예수가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며 베드로를 제지했고, 마태는 하나님께 로마의 열두 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를 보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셨다는 예수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와 폭동의 주동자인 바라바를 대조한다. 예수의 잔은 폭력의 거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의미한다. 예수는 폭력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거절하시고, 비폭력적인 섬김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길을 선택하셨다.¹⁷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반역의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순종한 대가였다. 그것은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한, 증오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용서와 의로움과는 무관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용서를 그 육체 안에서 드러내기 위한 고난이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¹⁸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폭력의 거부와 비폭력적 섬김의 정치라고 규정할 수 있다.

요더에 의하면, 전쟁의 문제는 현대 기독교 윤리학을 평가하는 시금석

¹⁶ 《현대기독교 윤리학의 동향》(예영커뮤니케이션 1997.) 41-8.

¹⁷ 김기현, 《요더의 예수의 정치학》〈복음과 상황〉 151.

¹⁸ K.G. Greet, *The Big Sin*. (Basingstoke Hants, England: Marshall Morgan & Scott, 1982.) 223-7.

이다.¹⁹ 전쟁에 대한 입장에 따라 그의 신학을 평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칼 바르트는 자신의 신학의 스승들이 전쟁을 지지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을 때, 그들의 신학과 윤리에 대한 깊은 회의와 함께 새로운 길을 로마서를 통해서 모색하였다.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한국전쟁의 경험과 현재적으로는 분단의 고통과 함께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전쟁에 대한 태도는 그 신학과 윤리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정당한 전쟁론(Just War Theory)을 지지하였다.²⁰ 정당한 전쟁론은 한마디로 교회가 역사를 통제하기 위해 힘과 폭력에 의지해야 한다는 콘스탄티누스적인 가정의 수용이다. 콘스탄티누스가 초대 교회가 건지했던 평화주의를 포기하게 하고 현실적인 정당한 전쟁론을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하지만 예수의 평화주의는 먼저 폭력의 거부이며,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강제력의 거부이다. 그 초점은 폭력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자신의 정당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한 수단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정당한 수단마저도 포기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써 당연히 행사하실 수 있는 권한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셨던 것처럼, 때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그 폭력과 전쟁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독교 평화주의의 단 하나의 정당한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양

¹⁹ Girdstone, R. B. *Synonyms of the Old Testament*. (Michigan: Eerdmans Pub., 1981.) 339-41.

²⁰ 신원하 “존 하워드 요더의 사회윤리학”, <목회와 신학> (1984. 5월호.) 79-85.

립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Lord)라고 고백하는 것은 전쟁과 폭력의 문제에서도 그분의 가르침과 행위를 본받는 삶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십자가는 예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마땅히 추종해야 할 규범이자 모범이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정점을 이룬 삶의 양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오직 단 하나의 요지, 단 하나의 주제는 - 계다가 그것은 일관되고 보편적으로 - 우리의 모범이 예수라는 것이다. 그분의 십자가 말이다.”²¹

제자들이 지금 그리스도와 공유하고 참여해야 할 영역은 바로 평화주의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강제와 폭력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그것을 단념하시고 비저항적 사랑의 예시라면, 제자의 십자가는 강제의 정당화, 곧 전쟁과 폭력의 정당화가 아니라 거부해야 할 것이다. 제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방하는 삶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폭력의 유혹을 거절하고, 자기 비움과 원수 사랑의 실천을 사회 정적인 영역에서도 실천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역시 다르지 않다. 그것은 증오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는 대가이다.” 따라서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 안의 하나님의 사역 곧 아가페와 십자가의 사역에 참여 또는 모방의 삶을 살아야 한다.²²

정당한 전쟁론은 최후의 수단으로 폭력과 전쟁을 정당화함으로써 비강제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다. 폭력의 사용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도 유혹이 아닐 수 없다. 강제력을 동원하여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눈앞에 명백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단념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지적처럼 “부

²¹ 김세윤, 《예수와 바울》 (두란노 2001.) 152-6.

²² Ibid., 132-5.

당한 사건이나 조건에 직면했을 때 폭력에 의지하려는 것은 폭력 본래의 직접성과 신속성 때문에 빠지기 쉬운 엄청난 유혹이다.” 그러나 우리는 빌라도 앞에 서야 한다. 역사로부터 물러설 수는 없다. 단 예수 그리스도처럼 무력이 아니라 약함이어야 한다.²³

(4) 평화주의와 기독교 현실주의

평화주의는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생명을 빼앗는 것에 반대하고 그리스도인들의 군 복무와 참전을 강력하게 거부한다. 이 입장은 일반적으로 모든 형태의 폭력적 행동을 거부한다. 설령 그것이 더 큰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지라도 말이다. 그래서 이들의 평화 이해는 비폭력 무저항이다. 이것은 콘스탄틴 이전의 첫 삼 세기 동안 교회의 지배적인 견해였다.²⁴

평화주의는 종종 악에게 저항하지 말며, 악을 없애기 위해 악을 쓰지 말라는 예수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에 권위를 부여해 왔다. 이들은 대부분 예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 이 평화주의는 콘스탄틴 이후 ‘시민 의무의 불복종’이라는 비판 아래 교회에서 주변으로 밀려나거나 아예 교회에서 밀려나 이단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아시시의 프란시스, 위클리프파, 에라스무스, 슈벡크펠트, 톨스토이, 슈바이처, 여호와의 증인, 마틴 루터 킹, 마하트마 간디 등이 평화주의자이며 특히 재세례파, 퀘이커파, 형제단은 ‘역사적 평화교회’라고 불린다.

평화주의는 입장과 태도가 다른 점이 있으나 공통적으로 비폭력주의이며 대개는 무저항을 평화로 생각한다. 그러나 무저항이라 할 때 이것은 정의가 결여된 개념이다. 평화주의자들에 대한 오류와 비판은 그 누구보다도 기독교 현실주의자인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에 의해 이루어졌다.

²³ Ibid., 150.

²⁴ 신동식, “프란시스 웨퍼의 사회개혁론 연구” (충신대학 신학대학원 1997.) 113-7.

어졌다.

라인홀드 니버는 톨스토이 식의 평화주의와 무저항주의자들의 사회는 강제력이 없는 무정부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조직될 수 있다는 확신을 환상으로 취급하며 평화주의자들을 현대판 기독교 완전주의자들로 생각한다. 그에 의하면, 평화주의자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사랑과 법과 죄 사이에 있는 갈등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인류 사회를 위한 영속적인 평화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가졌던 양심과 통찰력으로 촉진된 비전이었지 집합적 사람들로서는 성취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에게서 기대하는 것과 집단에게 기대하는 것 사이를 구별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개인으로는 도덕적이나 집단으로는 비도덕적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견지에서는 최고의 이상이 무사성(unselfishness)이나 사회의 관점에서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가 된다.²⁵

이러한 니버의 입장을 기독교 현실주의라 하는데 니버에게 있어서 현실주의는 정치적 현실주의이며 이상주의와 대조되는 말이다. 그에 의하면, 현대의 평화는 현존하는 권력의 불균형 안에서의 휴전에 불과하다. 평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사회적 평등의 정의이다. 평등한 정의가 사회의 가장 합리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다. 왜냐하면 사회는 이기적이고 야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사회 안에서는 평화 수립 과정에서 강제적 요소들이 인간의 부정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망하는 미래 사회는 완전한 평화와 정의가 있는 이상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정의는 있되 그의 공동사업이 전적인 불행이 되지 않도록 강제력이 십분 비폭력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권력은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위하여 정의를 희생시키고 또 공동체 간의 평화를 파괴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평화와 정의 수립은 사회전

²⁵ R. Niebuhr, Christianity and Power Politics (Archon Books, 1989.) 177-9.

략에 의존해야 한다. 또 전략 가운데 평화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폭력 사용을 인정하는데 이 방법은 또한 부정당한 방향으로 가기도 한다. 니버의 평화 이해는 이런 관계들로 인하여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지 않고 사회 안에서의 평화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그의 인간관에서도 기인한다. 인간은 먼저 죄인이라는 인간 본성의 낙관적 견해를 수정하고 ‘인간은 사회적인 피조물’을 개조한 데서 나온 것이다.

사회의 궁극적 목적인 평등한 정의를 통한 균형 있는 힘에서 나온 평화는 또한 그 평등 속에 사랑의 법이 반영되어 있어서 평등한 정의는 사랑과 변증법적으로 관계되어 나타나야만 한다. 그러나 이 평등의 원리는 완전하게 실현되어야 하지만 실현될 수 없고, 다만 우리의 삶 속에 타당하고 실천적이며 실용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평화주의는 사회에서 중요한 정의개념을 소홀히 했다면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는 현대적인 정당 전쟁론의 계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화론은 오늘날 같은 핵 위협의 시대에서 핵의 비축과 개발을 정당화시켜 주는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²⁶

3. 결론

폭력으로부터의 해방, 평화를 이름으로써 가능한 적대관계의 극복이 산상설교의 중심을 형성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표상을 전제하고 있다. 즉 인류의 본래적인 죄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폭력의 행위이며, 따라서 “인류의 구원은 공동의 삶에 봉사하는 평화에 있다”는 것이다.

구약성서의 제사장 문헌군(P문서)의 전승에 의하면, 죄는 땅 위에서 폭력을 행하는 데 있으며,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홍

²⁶ 제람바즈, 《핵전쟁과 평화주의》, 향영철 역 (생명의 말씀사 1987.) 59-67.

수를 내리신다. 유대교의 해석들도 파라다이스의 이야기를 원죄론을 가지고 해석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은 아벨에 대한 가인의 형제 살인과 함께 죄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성서에 따르면 이 가인이 첫 도시 건설자였다(창 4:17). 르네 지라르(Rene Girard)가 지적했듯이, 이 문헌들에서 사회건설과 폭력이 연결되어 나타난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무릇 인간사회는 폭력에 바탕해 있다는 - 어느 경우에는 대개 몰락되고 마는 - 인식을 엿보게 한다. 지라르에 따르면, 폭력의 혼돈을 억제하려는 바로 거기서 사회가 생겨난다. 그러나 이 억제가 달성되는 것 자체도 또다시 폭력을 통째서이다. 따라서 인간사회는 이미 그 뿌리에서부터 폭력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²⁷

또한 창세기 6장 13절에 의하면, “땅 위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었다.” ‘무법천지’는 무엇인가? 분명히 그것은 폭력의 행위와 압제의 확장에 있다. 창세기 6장은 인간과 신 사이의 교만한 중간존재를 낳기 위하여 천사들이 여자와 결합하였다는 고대의 신화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창세기 6장 4절에 의하면, ‘세상에서 폭력적인 자들’, ‘독재자들’이다. 이들은 바벨론과 이집트에 있는 실재적 지배자들인데, 이들은 자신을 종교적으로 ‘신의 아들’로 숭배케 함으로써 그들의 폭력적 통치권을 정당화시키고 신들의 이름으로 그들의 백성을 복종시킨다. 하나님에 대립하며 삶을 폐기시키는 폭력의 행위는 창세기 6장에 의하면 인간의 세계를 넘어서 “그 속에 살아 숨쉬는 모든 육” 위에 엄습한다. 그것은 먹고 먹히는 법칙 속에 있는 동물의 세계 위에도 엄습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홍수가 “모든 육” 위에 내린다.²⁸

²⁷ Augustine, *The City of God*, trans., Marcus Dods (New York: Modern Library, 1990.) 30-7.

²⁸ Ibid., 33-7.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폭력행위의 제한을 설정하셨다. 첫째, 인간은 무생물적인 자연에 이르기까지 생활계에 주어진 창조 속성을 파괴하지 말며, 둘째 다른 모든 생명체에게도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생명과 그 나뉠대로의 생활권 안에 들어 있는 생활 가능성이 보존되게 하며, 셋째 인간 이외의 생명 살해는 기본적인 생활 요구와 인간의 몸과 생명에 대한 모든 위협으로부터의 탈피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폭력의 행위뿐만 아니라 폭력적 제한도 극복하는 창조의 평화는 지혜의 ‘메시아’가 비로소 가져온다. 이시아에 의해 악이 극복될 뿐 아니라 악으로 악을 보복하는 법칙이 극복될 것이며, 폭력의 행위가 극복될 뿐 아니라 폭력적 저항을 통한 그의 제한도 극복될 것이다(마 5:46). 그러므로 평화와 폭력문제는 “메시아의 말씀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다른 어떤 규범이 있을 수 없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폭력의 악순환의 극복을 다음과 같은 산상설교에서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양값음하지 말라.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고 또 재판에 걸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십 리를 같이 가주어라. 달라는 사람들에게 주고, 꾸러는 사람들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라(마 5:39-42).

이 산상설교에 의하면, ‘원수 사랑’은 이웃 사랑의 완전이며, 하나님께 상응하는 형식이며, 땅 위의 지속적 평화에 이르는 길이다.

다시 말하면, 원수를 극복하는 길은 그의 악을 묵살하는 데 있다. 악은 상대방과 저항력을 잃을 때, 우리가 자진해서 악을 참고 악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서 참을 때 그 힘을 잃고 기진하게 된다. 이때 악은 괴롭게 할 대상을 잃기 때문이다. 제지는 악을 악으로 알아야 하고, 예수가 한 것

같이 악은 악하다고 증거해야 한다. 그 까닭은 이렇게 하는 길만이 악한 자를 넘어뜨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전혀 변명할 여지가 없는 악인에게 제지는 오히려 맞서지 않고 참음으로 악이 끝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폭력의 약함이요, 여기에서 ‘폭력에 대한 비폭력적 극복’이 시작된다.

마울도 산상설교를 받아들여 “악을 선으로 이겨내라”(롬 12:21)고 한다. 마울에게 있어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사는 삶의 존재양태이며, 사랑은 윤리의 최고 규범이다.

원수 사랑은 복수하는 사랑이 아니라 창조적 사랑이다.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 악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신다고 했다. 이것은 곧 원수 사랑은 모든 차이, 불평등, 대립의 종식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이란 그것을 통하여 인간이 살고 분열을 극복한 하나님의 행위이며, 이 행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혹은 화해인 것이다. 그러므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그가 우리의 평화이고, 평화는 화해 곧 원수 사랑으로 폭력에 대한 비폭력적 극복이다.²⁹

현대전은 방사능 무기, 생물학 무기, 그리고 화학 무기를 동반한 인류와 생태계의 파괴라는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핵무기와 핵투발 수단 및 전자전 장비의 발전은 재래전의 개념을 총체적으로 뒤바꿔 놓았다. 인간 스스로가 가지고 행사하는 살상능력은 이제 가공할 단계에 이르러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전쟁을 논의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핵무기가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살상하여 인종을 말살할 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 자체를 파멸시킬 만한 상호 공멸의 실제적인

²⁹ 앙드레 트로끄베 “예수와 비폭력혁명” 양명수 역 (한국신학연구소, 1986.) 77-82.

능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공포스런 현대전의 전망 속에서 평화의 추구는 이제 상투어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의 중립선언이나 그리스도인의 도피적 반전운동이 평화를 담보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핵 위협 아래 있는 나라의 핵 억제력의 확보와 강력한 방위력이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의 필요조건이 되었다.

싸울 날을 위한 철저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추구를 위하여 더욱 중요한 것은 전쟁의 주님 되신 하나님과 한 국가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며, 아울러 국가 내의 가중한 범죄를 척결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도 전쟁에서 패배한 동서고금의 타락한 국가는 한 국가의 영적 건강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적절한 평화 추구의 수단이었음을 성경이 논파하고 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군대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 군대이며 한 나라의 가장 믿을 만한 ‘병거와 마병’임을 깨닫고 주님의 평화를 지켜내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초기 전군 신자화 운동의 비화

A behind story of Evangelization for Soldier in Korean Army

정성구 Chung Sung Kuh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및 대학원(Th.M.)
- Vrije Universiteit(Drs.Theol.)
- Geneva College(D.Litt.)
- Debrecen Reformed University(D.D.)
- Whitefield Theological Seminary(Ph.D.)
- 전 총신대학교 학. 총장, 대학원장, 신대원장, 목회대학원장
- 전 대신대학교 총장, 대학원장, 총신대학교 명예교수,
- 현 칼빈대학교 석좌교수, 한국 칼빈주의연구원장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흔히 군목들은 군선교를 황금어장에 비유하곤 한다. 그만큼 젊은이들이 병역의무를 하는 동안에 군인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성직자인 목사를 만나게 되고, 장병들과 군목의 인격훈화나 설교를 통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복음을 접하게 된다. 사실 군선교 또는 군복음화운동이 한국교회의 부흥에 크게 이바지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전군 신자화운동에는 진중세례식이 갖는 의미도 대단했다. 이 진중합동세례식이 197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후방교회의 목회자들과 협력하여 지

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심히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군목들까지도 진중합동세례식에 대한 비판적인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진중합동세례식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며,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않고 마구잡이로 숫자나 건수 올리기에 급급하다면서 진중세례식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이 있다고 들었다. 물론 초기 진중합동세례식을 할 때와 지금은 병영문화도 달라졌고, 군복무기간도 1/3이 단축되었다. 세상이 바뀌고,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IT산업의 발달로 매우 살기 편한 이른바 N세대 젊은이들과 군목들의 세계관이 40년 전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년 전 진중합동세례식을 통해서 전군신자화운동을 앞에서 이끌었던 필자는 그 당시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 뒤이어오는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이 글을 쓰고 있다.

나는 1964년 충신대학교 신대원 1학년 때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군종장교후보생 시험에 합격했다. 군종병과가 생긴 후에 주로 군목 자원을 일반목회자에서 지원한 목사를 채용했다. 그러나 1963년에는 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우수한 학생들을 미리 선발해서 목사 안수 때까지 군복무를 유보했다가 목사안수 후에 즉시 입대하는 새로운 제도가 생겼다. 이는 국방부로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서 좋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군대를 가야 하므로 목사로서, 장교로서 봉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다. 복무기간은 장교 임관 후 3년이였다. 나는 바로 그 첫 케이스가 된 셈이다. 나는 1968년 11월에 목사가 되었고, 1969년 3월에 소집되어 논산훈련소를 거쳐 육군 보병학교 특수 간부 28기와 군종 25기로 중위에 임관했다. 그리고 나는 육군 종합행정학교까지 마치고 난 후 보병 26사단 76연대에 배속되었다. 1968년에 북한의 124군부대 출신인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파괴하기 위하여 기습 공격하다가 체포되었다. 북한의 124부대는 혹독한 훈련으로 무장된 자들로서 장단지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산을

비호처럼 움직이는 특수군이였다. 북한의 124군부대의 침투를 당한 후에 우리 군도 강도 높은 훈련을 했다. 그래서 나도 육군보병학교 시절 모래주머니를 장단지에 차고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다. 당시 일군 야전사령관 한신 장군이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북한과 대결하고 있는 우리 국군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정신력강화’, ‘신앙전력화’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그것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뜻이기도 했다. 이런 메시지는 일선 부대장과 군목들에게 새로운 과제가 떨어진 셈이였다.

그런데 1970년 봄에 이미 합동 측에 속한 군목이었던 이상강 대위가 진중세례식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3366부대 즉 보병 26사단 76연대를 복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했다. 당시 연대장은 김복동 대령으로 육군 장교 중에 가장 촉망받는 선두주자였고, 막 주월 한국군 보안사령관을 끝내고 대령으로 진급하자마자 우리 부대의 연대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불교신자였지만 군목이었던 나에게 군종업무를 적극적으로 밀어주었을 뿐 아니라, 군복음화 사업의 전권을 나에게 다 맡겼다.

우선 나는 부대 장병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체계화했다. 먼저 전 장병들에게 성경을 읽히는 것이였다. 기드온 성서협회의 도움으로 전 장병이 신약성경과 시편이 있는 포켓성경을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상의 왼쪽 상단 주머니에 필수적으로 소지하도록 했다. 이것은 신·불신 간을 막론하고 우선 성경을 갖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귀히 여겼다. 그런데 나는 장병들이 성경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경공부를 시켰다.

우선 군종과에는 ‘3366부대 성경통신과’를 개설하고 질문지를 만들어 대대별로 중대별로 하달하면, 장병들이 성경을 보고 답을 쓰도록 했다. 답지가 도착하면 점수를 매겨서 다시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계속 했다. 이는 생전 처음 성경을 보고 복음을 접하는 것이었지만 장병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다. 솔직히 말해, 오늘날의 교회에서 학습세례를 줄 때 몇 시간의 교육으로 억지 신앙고백을 받아내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제대로 된 것이었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포켓성경과 똑같은 사이즈의 찬송가를 만들기로 했다. 그 이름 하여 〈야전 찬송가〉라 했다. 사실 일반 교회 성도들이 큰 찬송가를 갖고 다니지만 실제로 늘상 부르는 것은 불과 40여 곡밖에 안 되는 것에 착안해서 찬송가 600곡 중 40곡을 엄선해서 축소하고 사진판으로 출판했다. 당시 국방부에서 발행한 국군 찬송가는 커서 교회당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 야전 찬송가도 상의 왼쪽 주머니에 성경과 더불어 소지하다가 내무반 예배 시 함께 찬송을 제창하고 중대끼리 시합을 하기도 했다. 그때 〈야전 찬송가〉의 서문에 김복동 연대장은 이렇게 말했다.

“추천사

금번 우리 부대는 전 장병 신자화의 일환책으로 국제 기드온 협회의 도움으로 전 장병이 성경 한 권씩을 갖게 되었고, 또 찬송가의 필요를 느껴 오던 바 군종과에서 〈야전 찬송가〉를 발행하여 이제 전 장병이 성경과 찬송가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신앙의 힘이 군지위에 있어서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기 때문에 이 〈야전 찬송가〉를 추천하오니 이 책이 장병 여러분에게 아주 유익하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제3366부대장 대령 김복동”

그리고 〈야전 찬송가〉의 머리말에 나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이는 당시 진중합동세례식을 위한 준비와 부대의 복음화를 위한 노력이 어땠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먼저 〈야전 찬송가〉를 하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 장병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마다 모두 함께 사용할 찬송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우선 가장 많이 사용하는 40여 곡을 수록한 〈야전 찬송가〉를 발행합니다. 훈련장에서나 내무반에서, 비뿔 때나 틈날 때 항상 찬송하며 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가를 만들도록 도와주신 연대장님과 기도와 물질로 도와주신 후방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으로 ① 왼쪽 상의 호주머니에 성경과 함께 항상 휴대할 것 ② 이 찬송가는 각종 예배 시에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전 부대 장병들이 성경과 찬송을 함께 읽고 부르는 것도 모자라 불신자나 신자나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만화 〈일병 김산호〉를 발행했다. 나는 우리 부대 안에 만화가와 인쇄업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김복동 연대장에게 건의해서 몇 주간의 휴가를 주어 제작하도록 했다. 읽을거리가 마땅치 않던 시절에 각 내무반에 비치된 〈일병 김산호〉는 인격훈화의 성격을 띠면서도 암시적으로 복음에 접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아마 연대급 부대에서 이러한 출판물들은 처음이라고 본다. 후일 나의 아이디어를 취해 국방부 군종실에서 〈야전 찬송가〉와 비슷하게 제작했으나 찬송가를 1/2로 축소한 것뿐이고 실용성이 없었다.

또한 나는 그 당시 장교, 하사관 부인들이 무료하게 아까운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쉬워서 연대급 부대에서는 최초로 장교, 하사관 부인을 위한 ‘주부대학’을 만들었다. 군인교회의 주최로 장소를 제공하고, 매주 한 번씩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듣게 함으로써 군인가족들의 교양을 높이는 일을 했다. 사실 이 일이 있은 후 10년 후에야 이화

여자대학교에서 평생 교육원이 생겼으니 내가 1970년에 만든 주부대학이 평생 교육의 효시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일이 이렇게 되자 전 장교와 하사관들은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전군신자화운동, 진중세례식에 적극 동참했다. 그해 가을 26사단의 중령 최세태 군목의 발의로 26사단 진중세례식을 베풀었을 때, 76연대가 가장 많은 병사들이 세례를 받아 이 방면의 선봉부대가 되었다. 그때 전 사단에서 1,200명이 세례를 받았고, 많은 목회자들이 도와주었으며, 강원룡 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내가 간단하게나마 진중세례식 때의 활동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이 진중합동세례식을 시작할 때는 형식적이고 무대포로 숫자놀음을 했던 것이 아니고, 눈물과 땀을 바치고 정열을 쏟아 일구어낸 작품이라는 것을 꼭 말하고 싶었다. 이는 나의 업적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군복음화와 진중세례식이 한층 더 다듬어지고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발전되어야 한다는 미래 지향적 방향 제시에 약간의 도움이 될 듯해서 몇 자 적어본 것이다. 나는 3년이란 짧은 세월 동안 군종업무에 종사했었지만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보람되고 알찼던 기간이었음을 고백한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뿐이고 우리는 다만 그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이라는 생각이다.

《목수지법》에 나타난 세례자 교육 방안 연구

A Study of a Method on the Catechumenal Practice in the Korean Military Context, Vision2020: With a Focus on a Contemporary Application of the Korean Early Presbyterian Treatise, *Mok Sa Ji Beob*(Pastoral Theology, 1919)

■ 최석환 Choi, Sok Hwan

■ 총신대학교(B.A., M.Div., Th.M.)

■ 한국외국어대학교(B.A.)

■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철학박사(Ph.D.)

■ 육군 리더십센터 상담처 상담교관

■ 자운교회 협동목사

■ MEAK 한국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1. 서론

《목수지법》(*Pastoral Theology*, 1919)¹은 곽안련(郭安連, Charles Allen Clark, 1878-1961년)²이 맥코믹(McCormick) 신학교 교수 헤릭 존슨(Herick Johnson)의 목회신학 강의를 참고하여 단순한 번역이 아닌 자신의 내용으로 재편

¹ 郭安連(Charles Allen Clark), 《목수지법(牧師之法)》(京城:朝鮮耶穌教書會, 1919).

한 것이다.³ 《목수지법》(1919년)은 한국 장로교 최초의 목회학 저서이며,⁴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예배모범》(1922년), 《혼상예식서》(1924년), 《목회학》(1925년), 《목사필휴》(1933년) 출판에 영향을 끼친 책이며,⁵ 당시 한국의 문화와 상황을 상당히 반영한 예배지침을 제시한 책이다.⁶ 《목수지법》(1919년)의 목차에는 30개의 공과(工課) 제목이 소개되어 있다.⁷ 이 중 관심분야인 세례는 ‘제18공과 목사와 성례’에서 실천적인 부분까지 다루어져 있다. 본 연구자는 《목수지법》에 나타난 세례자 교육방안을 연구하

기 위해 《목수지법》의 세례의 이해와 세례집례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2. 《목수지법》의 세례의 이해

1) 기독교의 도리(道理)의 심장(心腸)으로서의 성례

《목수지법》의 ‘제18공과 목사와 성례’는 로마 가톨릭의 7성례와 예수교회의 2성례를 비교하며 시작한다.

로마교중에성례날곱가지가잇스니세례와성찬과혼례와장립례와권징례와
견신례와종도례요예수교회안에두성례만잇스니성찬과세례라⁸

《목수지법》의 ‘제18공과 목사와 성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세례와 성찬이 기독교의 도리의 심장임을 강조하며, 성례를 집례하는 목사의 특권과 영광을 인식시키며 마친다.

성찬과세례는우리교회안에이두례식밧기업스나이들이우리의종교의도리
의심장이니첫째는예수의피의공로로죄를씻음을밧는표요둘째는변화산과그치

⁷ 《목수지법》에는 30개의 공과(工課) 제목들이 있다. 즉 총론, 목사의 직분, 목사의 성품 중에 결과하게 하는 성질(Elements of Character Making for Success), 하나님의 부르심, 목사의 개인적 생활, 목사의 기도생활, 목사의 개인적 공부, 목사의 교수하는 일, 목사의 개인전도, 목사의 일자리를 택함, 목사의 책임의 범위, 예배회의 예비, 목사와 공예배, 부흥회, 목사와 기도회, 목사와 성경주일학교, 목사의 심방하는 일, 목사와 성례, 목사와 혼례와 상례, 목사와 음악, 목사와 학교, 목사와 노동자, 목사와 인쇄기, 목사와 교회의 유희, 목사와 재정, 목사와 사경회, 목사와 당회, 목사와 상치리회(The Pastor and the Higher Church Courts), 목사와 타교파나 타회(The Pastor and Other Domination and Agencies), 회당 건축 등이다.

⁸ 《목수지법(牧師之法)》, 307.

² 콕안런(Charles Allen Clark)은 Mackalest College, 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 수학(1899-1902년) 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서 1902년에 내한하여 승동교회 목회활동(1902-1924년), 평양신학교 교수활동(1908-1939년)을 한 한국장로교회에 신학적인 공헌을 한 선교사이다. 총 51권의 책을 번역, 저술하였다. 다음 책들을 참고하라. 이호우, 《콕안런의 신학과 사상》(서울: 생명의말씀사, 2005), 66, 106, 129, 183; 홍치모, “초기 미국 선교사들의 신앙과 신학,” 〈기독교사상〉, 제26권 제2호(1982. 2), 46; Kim Kyeong Jin, “The Formation of Presbyterian Worship in Korea, 1879-1934” (Th. D.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1999), 141.

³ Charles E. Sharp, “A Review of Pastoral Theology” The Korea Mission Field, Vol. XVI, No. 11(Seoul, Korea, November, 1920), 235-236.

⁴ 한국교회 최초의 목회학 저서는 올링거(F. Ohlinger)의 번역서 《牧師之法》(1901년)으로 보여진다. 이 책은 독일 감리교 신학자 니페르트(L. Nippert)의 저서 Pastoral Theology를 올링거가 중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감리교에서 사용된 올링거의 《牧師之法》은 장로교에서 사용된 콕안런의 《목수지법(牧師之法)》(1919년)보다 18년이나 먼저 출판되었다.

⁵ 김태규, “한국교회 초기문헌의 역사적 고찰에 따른 성찬신학과 실제” (Ph. D. diss., 백석대학교, 2006), 283-284. 콕안런은 《목수지법(牧師之法)》출판 이후 《목회학》(The Work of the Pastor, 1925)을 집필하였는데, 이는 《목수지법(牧師之法)》의 내용을 토대로 추가, 삭제, 변경한 것이다. 또한 그는 《목사필휴》를 집필하였는데, 이는 예식서 성격의 책으로서 각종 예식 예배의 형태와 순서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장로교 총회에서 발행한 《혼상예식서》보다 자세한 참고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목사필휴》는 총2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장 영아세례식과 9장 입교예식을 포함하고 있다.

⁶ 김정진, “목수지법(牧師之法)에 나타난 콕안런(Charles Allen Clark) 선교사의 예배신학과 방법론 연구,” 《부산장신논총》(2004. 11), 210.

예수와 연합함이라 이두례식은 목사의 생활에 7장 높은 거스로 생각함 이 합당함의 다목사의 생활에 어려움이 만코 걱정이 만히 잇겠지 마는 하느님의 사자로 이두례식을 하면서 서서 주관을 세 에 목사가 그 걱정을 다니져 버리고 그 어려운 거슬 내여 놓코 하느님의 명을 가지고 온 나노자의 특권과 영광을 알거시라 시팔 십사편 십에 써 율의 말이 《내가 하느님의 면에서 문하인 노릇 하는 거시 악한 자의 집안에 주인 노릇 하는 것보다 승한 줄이 노라》 하니라 목사가 이 7치 하느님의 대표자로서 서서 이 두가지의 거룩한례식을 시행할 세 에 그 영광은 신령한 영광 뿐 이지 마는 세상 왕의 영광보다 나흐니라 이와 7흔 세 는 목사의 상을 받는 세 영광의 세 나라”⁹

곽안련은, 세례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은 표이며, 성찬은 변화산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세례와 성찬은 목사의 생활에 가장 높은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명을 가지고 서서 집례하는 것은 목사의 특권과 영광임을 인식시키고 있다. 시편 84편 10절을 인용하며 목사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집례할 때 신령한 영광뿐이지만 세상 왕의 영광보다 승함을 선포하고 있다.

2) ‘보이는 은혜’로서의 성례

《목수지법》에서는 성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보이는 은혜’ (Visual Grace)로서의 세례와 성찬을 강조하고 있다.

이성례는 목사가 향상강도 하는 리치를 물건으로 표하는 거시 되고는 압해 보이노 증거로 그리치를 확명 하는 니이를 봄으로 이성례가 얼마나 귀중한 지알 지라¹⁰

⁹ Ibid., 343-344.

3) 세례의 5대 의의

《목수지법》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의 신경 제10조 내용을 인용하며 세례의 정의를 내린 후, 세례의 5대 의의를 진술하고 있다.

세례의 뜻은 본교회신경책에 명백히 7 첫 첫 스니 《세례는 성부 성자 성신의 일함으로 써 물노 씻음이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신으로 말미암아 충성하고 시름게 함과 우리 주의 종이 되노 언약을 잇는 거슬 인쳐 증거 하는 표인즉 이례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그의 자녀들의 계행 하는 거시라》¹¹ 그런즉 다섯 가지의 뜻 이잇스니 (一) 예수 께서 되신 하야 홀니 신피의 공노로 우리들의 죄를 다 씻게 된 표요 (二) 하느님의 식구로 입회하고 하느님의 나라에 입적하는 표요 (三) 하느님의 사람이 된 표요 병명이 그 나라복식을 넘으니 보노 이가 다 그 복성으로 알거시오 또 병명이 복식이 잇서야 병명의 직분을 더 잘 할 거시 아니지 마는 복식 잇는 거시 더 주미잇스니 세례도 또 한 그러하니라 (四) 우리들이 복을 받을 능력 잇는 기는 대로 성신이 복을 더 만히 주시고 저하는 표요 (五) 그 사롬이 밍세 하여 몸을 들여서 주과의 뜻 대로 다시 살지 아니하고 예수의 뜻 대로 살기를 작명하는 표니라¹²

첫째 예수께서 대신해서 흘리신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다 씻게 된 표이며, 둘째 하나님의 식구로 입회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적하는 표이요,

¹⁰ Ibid., 308.

¹¹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Seoul: Korean Religious Book and Tract Society, 1919), 5 :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경성: 대한예수교장로회간인, 1910), 5-6. 원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세례는 성부 성자 성신의 일함으로 물노 씻음이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신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롭게 하심과 우리 주의 종이 되노 언약을 믿는 자와 믿는 그의 자녀들의 계행 하는 거시오.”

¹² 《목수지법(牧師之法)》, 310-311.

셋째 하나님의 사람이 된 표로서 군인이 군복을 입지 않고도 군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지만 군복을 착용하면 더욱 애국심 있는 군인으로 인정받는 것과 같다. 넷째 우리들이 복을 받을 능력이 생기는 대로 성령께서 복을 더 많이 주시고자 하는 표이며, 다섯째 세례 대상자가 맹세하여 몸을 들어서 자기의 뜻대로 다시 살지 아니하고 예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표이다. 다섯 가지 중 넷째의 “성령께서 복을 더 많이 주시고자 하는 표”라는 것을, 객안련의 《목회학》에서는 “세례는 마음속에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표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¹³

3. 《목수지법》의 세례 집례 방안

1) 세례의 집례자로서의 목사

《목수지법》에서는 세례를 집례하는 자는 오직 목사임을 진술하고 있다.

이세례를베프는권은목수의게만잇고성부성자성신의일함으로세례주는것과포도즙을붓는것과색을세는권이그사람의게만잇느니라¹⁴

이는 조선 장로교회의 1907년에 채용한 정치 책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 제2조와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영문판¹⁵과 한글판 예배모범 제9장 1조에도 언급된 것이다.

¹³ 객안련, 《목회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168. 이 책은 1925년 8월 30일 초판 1쇄에 이어 1991년 7월 30일 개정 1쇄를 했으며, 2006년 11월 10일 개정 15쇄에 이르렀다.

¹⁴ 《목수지법(牧師之法)》, 308.

데이도 레비절초 주일에 모든 신도가 맞당히 모혀서 하느님 색 레비홀지니 레비홀는 절초는 기도함과 찬미함과 성경을 보고 강도하는것과 연보하는것과 안수기도 하는것과 성례를 베프는거신딕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니 이두가지는 목수만 베프느니라¹⁶

세례는공연히지체할것도아니오어더한형편을물론하고평신도가줄수업고 반다시하나님의사역자로부르심을받은그리스도의목사가줄지니라¹⁷

출판시기가 앞선 《위원입교인규도》(1895년)에서도 세례와 성찬의 집례의 권이 목사에게만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성례는목수가베프는거시니밋는사람의게예수와련함하게하는인친표적이니라¹⁸

《목수지법》에서는 로마 가톨릭과 기독교를 비교하며 목사의 세례 집례권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세례 주는 것이 신부의 직분이지만 급한 때에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여자라도 베풀 수 있다. 이는 로마 가톨릭은 세례는 구원하는 예식이요, 세례를 받지 않고 죽는 자는 구속함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할 줄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세례는 중대한 것으로 알아도 믿음으로만 천당에 갈 줄 알고, 형편을 인하여 세례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

¹⁵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74. “Baptism is not to be unnecessarily delayed ; nor to be administered in any case by any private person ; but by a minister of Christ, called to be a steward of the mysteries of God.”

¹⁶ 《대한예수교장로회신경과규칙》(경성: 대한예수교장로회간인, 1910), 9.

¹⁷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34), 232-233.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넉넉히 받을 수가 있는 줄로 알고 있다. 세례를 베푸는 목사가 선하고 선하지 아니한 것이 상관없으며, 그 목사가 악하여도 별 아래 있지 아니하면 관계치 않은 줄로 알고 “세례는 세례가 된다”¹⁹고 하는 것이다.

2) 세례를 위한 집례자의 준비

《목수지법》에서 광안련은 세례와 성찬 집례자인 목사마다 장로교회 신경 제10조, 예배모범 제9, 10, 11장, 장로교회 정치문답 조례 139문에서부터 150문까지 자세히 알고, 특별히 장로교회 신경과 예배모범에 있는 예배의 뜻과 묻는 말을 외우도록 공부하고, 책이 없어도 그 예식을 잘 행

¹⁸ 馬布三悅(Samuel Austin Moffet), 《爲願入敎人規條 위원입교인규도》(京城: 朝鮮耶穌敎書會, 1895). 17. 참고적으로 《爲願入敎人規條 위원입교인규도》교회치리법(교회다스리노법) 조항을 보면, 한국교회 초기 직제로는 ‘목수(혹칭 감독)’와 ‘선도사’, ‘장로’, ‘집사’가 있었으며, 임시직으로 ‘조사’(助事)와 ‘령수’(領袖)가 있었다. ‘조사’(助事)는 목사를 도와 일을 의론하고 각처 교회로 다니면서 일이 어찌되어 가는지를 살펴 교회에 유익하도록 하며, 전도를 부지런히 하며, 각처 교회로 다니다가 목사가 없다면 예배를 인도하며,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여 각처 교회로 다니면서 영수와 교우와 원입교인을 자세히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 ‘령수’(領袖)는 목사와 조사를 돕고 일을 다 의론하여 원입교인이 있거든 그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목사에게 주고 교회에 유익하도록 힘써 일을 보고 교우나 원입교인 중에 책벌할 사람이 있다면 당회에 말을 하며, 목사나 조사나 없을 때에는 예배를 인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선별하여 인도하게 하며, 교우 중에 병이 있거나 재난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가서 보고 기도하며 위로하였다. ‘집사’(執事)는 연보전을 모아서 받은 후에 얼마를 받았으며 어떻게 썼는지 자세히 치부하였다가 일 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회계하여 교우에게 제시하며, 목사와 영수와 한가지로 교회재정을 경영하여 연보전을 교회에 유익하게 하며, 교우 중 어려운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환과 고독을 보호하여 도와주고 또 일없는 사람을 권하여 부지런히 일하게 하고 일을 경영하여 맡기는 자였다. 《爲願入敎人規條 위원입교인규도》, 25-28.

¹⁹ 《목수지법(牧師之法)》, 311-312.

하도록 공부할 것을 명하고 있다.

우리장로교회신경제십도에그성례의요미 뜻을말하엿고레비모범책구, 십, 십일에그례식을베프는디더히야그법칙이잇고그정치상도리가잇고그례식을베프는디더히문답이디잇고장로교회정치문답도례책에백십구문에서부터백오십구문까지지불만흔말이만히잇느니라목수마다이몇칙은조세히알고특별히그신경과레비모범책에잇는레비의 뜻과문노말을외오도록공부하고책이업셔도그례식을잘하하도록공부홀지니라²⁰

광안련은 예를 들어 말하기를 어떤 목사는 세례와 성찬을 베풀 때에 그 말을 예식책을 보고 낭독하는데 자기의 기억이 믿음직하지 못하면 낭독하는 것이 관계치 아니하지만 외우도록 공부하고 책이 없어도 자유롭게 하면 모양이 좋다고 진술하였다.²¹ 이는 세례와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의 철저한 실천적 준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래의 글에 의하면 세례와 성찬을 베풀기 전에 목사가 성례를 베푸는 날에 대하여 자주 말하고, 그 날에 대한 희열과 신령한 유익을 많이 얻을 줄 아는 마음으로 교우들과 함께 바라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세례를 베풀기 위한 실제적인 준비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성례를베풀기전에목수가그날에더히야조말하고별명일에예비하듯준비하고그날에더히야깃버호와신령한유익을만히얻을줄아는마음으로바라고교우로하여곰기치바르게홀지니라²²

²⁰ Ibid., 307.

²¹ Ibid., 308.

²² Ibid., 309.

3) 타교단의 세례 인정 문제

《목수지법》에서는 타교단의 세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방침을 논하고 있다.

장로교회가 사자들의 세례는 세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유교회에서 세례 받은 자로서 본회에 입회하기를 청하면 당회가 결의대로 그 세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드려오라 한 지 할 수 있는 나라 그 주유회가 완전히 조직하고 정치인 교회이면 당회가 그 세례를 참세례로 알 수 있으나 원치 아니하면 다시 세례를 받으라고 할 수 있고 로마교회에서 온 자도 그러한 자라 당회가 시험하여서 리치를 알고 진실히 믿는 자로 알면 그냥 세례인으로 받을 수가 있고 긴요한 도리에 더하여서는 거시 부족할 줄로 알면 얼마 동안 학습으로 있다가 세례를 다시 주든지 어린 때에 세례 받은 자처럼 물세례 없이 맹세로만 받을 수 있다. 세례업시 맹세로만 받을 수 있다. 니리²³

곽안련의 《목회학》에서는 상기한 글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長監兩敎派에서 平信徒의 施洗는 敎會가 認定치 아니함으로 었던 獨立敎會에서 領洗한者면 形便을 善히 辨혀 平信徒가 베폰 洗禮인지 아닌지 알아 酌定할 것이다. 로마敎會 洗禮人이 改革敎會로 改宗하는 境遇에 가 問答하여 領洗의 意義를 分明히 覺悟하였으면 認定하고 그갓지 못하면 다시 施洗할 것이다.²⁴

결국 《목수지법》에서는 장로교회가 평신도의 세례는 세례로 인정하지

아니함과 독립교회에서 세례 받은 자로서 장로교회에 입회하기를 원하면 당회의 결의대로 받든지 다시 세례 받고 들어오라고 하든지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로마 가톨릭에서 온 자의 경우에는 당회가 시험하여서 이치를 알고 진실히 믿는 자로 알면 그냥 세례인으로 받을 수 있고, 긴요한 도리에 대하여 아는 것이 부족한 줄로 알면 얼마 동안 학습으로 있다가 세례를 다시 주든지 어린 때에 세례 받은 자처럼 물세례 없이 맹세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4) 세례의 형태 문제

《목수지법》에서는 《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 예배모범 제9장 6조를 언급하며 세례 형태를 논하고 있다.²⁵ 즉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부르면서 물로 그 사람의 얼굴에 붓든지 물방울을 떨어뜨림으로 세례를 주고 다른 예식을 더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보통 기독교는 물을 떨어뜨리는 방침대로 한다. 그러나 목사가 교육하여 세례의 의의를 가르친 후라도 침례를 원하면, 감리회나 장로회가 침례를 허락하고 목사가 그대로 베풀지라도 책망이 없으리라고 언급하고 있다.²⁶

또한 ‘삼번식’(三番式)과 ‘일번식’(一番式)의 문제이다. 세례를 베풀 시 손을 세 번 물에 넣어서 세 번 물을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보통 일번식으로 해도 별 관계가 없으며, 목사가 자기의 결의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²³ Ibid., 312.

²⁴ 곽안련, 《목회학》(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36), 134.

²⁵ 정장복 교수는 “한국교회 최초의 실천신학 교수 곽안련의 《목수지법》에 나타난 예배의 신학과 이론”이라는 글에서 작은 오류를 범했다. 그것은 세례의 형태문제를 논하면서 《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 예배모범 제9장 6조에 나온 인용구를 마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에 있는 인용구로 착각한 것이다. 다음 책을 참고하여 확인하라. 예배모범에 정장복 외 4인, 《2006년도 교회력에 따른 예배와 설교 핸드북》(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5), 53.

다.²⁷ 성인에게 세례 줄 때에는 ‘삼번식’으로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를 생각하여 좋고, 유아에게는 ‘일번식’으로 하여 어린아이를 너무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목수지법》에서 권하고 있다.

《디다케》와 《사도전승》에서는 ‘삼번식’을 추천하고 있다. 《디다케》 7:3처럼 만약에 둘 다 없다면, 즉 ‘살아 있는 물’도 ‘다른 물’도 없다면, 혹은 ‘찬 물’도 ‘더운 물’도 없다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머리에 세 번 부었다.

둘 다 없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세 번 부으시오.²⁸

《사도전승》에서는 상세한 질문들과 함께 세례 대상자를 세 번 침수한 기록이 있다.

세례받을 사람이 물에 내려가면 세례를 베푸는 이는 그에게 안수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하고 물어볼 것이다. 세례받을 사람은 “믿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즉시 그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한 번 침수시킬 것이다.

그다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

에게서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고 산 이와 죽은 이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고 물어볼 것이다. 그가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면, 그를 다시 침수시킬 것이다.

그리고 다시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까?” 하고 물어볼 것이다. 세례받는 이가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세 번째로 그를 침수시킬 것이다.”²⁹

5) 물그릇과 소반 사용 제안

곽안련은 《목수지법》에서 서구 교회에서 널리 사용된 세례반(Baptismal Font)을 언급하지 않고, 물그릇과 소반 사용을 제안하고 있다. 세례식에 사용될 물은 아무 그릇이든지 담을 수 있지만, 좋은 기명(器名) 한 벌을 사서 성찬기와 함께 두고, 다른 일로 사용하지 않으며, 세례식을 베풀기 전에 물그릇 상하에 눈같이 백수건(白手巾)이 있게 하고, 물그릇을 체용(體容)이 맞게 적은 소반(小盤)에 두어 거행하는 것이 모양이 좋다고 추천하고 있다.

²⁶ 《목수지법(牧師之法)》, 313. 《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영문판(1919)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Seoul: Korean Religious Book and Tract Society, 1919), 75. “I baptise thee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s he pronounces these words, he is to baptise the child with water, by pouring it or sprinkling it upon the face of the child without adding any other ceremony and the whole shall be concluded with prayer.”

²⁷ Ibid., 314.

²⁸ <Διδαχη> 7:3 “ἐὰν δὲ ἀνφοτερα μὴ ἔχῃς εἰς τὴν κεφαλὴν τρὶς ὕσῳ εἰς ὄνομα πατρὸς καὶ υἱοῦ καὶ ἀγίου πνεύματος.”

²⁹ Traditio Apostolica, xxI. 원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Cum ergo descendit qui baptizatur in aquam, dicat ei ille qui baptizat manum imponens super eum sic: Credis in deum patrem omnipotentem? Et qui baptizatur etiam dicat: Credo. Et statim manum habens in caput ejus inpositam baptizet semel. Et postea dicat: Credis in Chr(istu)m Je(su)m filium d(e)i, qui natus est de sp(irit)u s(an)c(t)o ex Maria virgine et crucifixus sub Pontio Pilato et mortuus est (et sepultus) et resurrexit die tertia vivus a mortuis et ascendit in caelis et sedit ad dexteram patris venturus judicare vivos et mottuos? Et cum ille dixerit: Credo, iterum baptizetur. Et iterum dicat: Credis in sp(irit)u s(an)c(t)o et sanctam ecclesiam et carnis resurrectionem? Dicat ergo qui baptizatur: Credo. Et sic tertia vice baptizetur.”

물은아모그릇이던지담을수잇스나도호그명호별을사셔성찬그릇과함께두
고다른일노쓰지아니호면그례식이더조미있게될지니라례식을베플기전에그
그릇상하에는7치원수건이잇스면모양이도코그 을체용이맛게쥬은쇼반에두
어거형호는거시모양이도호니라³⁰

이는 객안련이 한국교회의 예배당의 구조와 사정을 깊이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예배당이 좁고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점을 배려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고정된 ‘세례반’ (洗禮盤, Baptismal Font)이 아닌 이동이 용이한 ‘물그릇’ 즉 ‘세례기’ (洗禮器, Baptismal Vessel)로 대체한 것이다. 세례 대상자는 자리에 앉아 있고, 세례식을 집행하는 목사가 장로와 함께 움직이며 세례를 주는 객안련 방식의 세례식을 제안한 것이다.

이어서 객안련은 목사의 세례식 집례 시 장로의 수발과 유의사항을 제안하였다.

그런즉엇던교회는장로호사람이그그릇을들고목수를 썬 라서합당호 세에
목수의손압헤그그릇을드리노지라장로가종용이돈이고목수더신쥬관호여보지
안으면이방침이도호나장로가조곰이라도소리호던지말호며도라돈이노더목수
의돈이노거슬방호면유익은업고해라호 호방이좁고사람이만든면두사람이도
러돈이기어려우우리목수가혼조형호는거시도코³¹

이는 목사는 양손을 사용하여 왼손으로 세례기를 들고 오른손으로 물을 떨어뜨리다가 세례받는 자의 이름을 잊어버려 한 손으로 세례 대상자 명부책을 찾아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 명의 장로가 세례기를 들

고 목사를 따라서 합당한 때에 목사의 손 앞에 세례기를 드리는 것을 권한 것이다. 이때 장로가 말 없이 조용히 행하여 목사의 집례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방이 좁고 사람이 많으면 목사와 장로 두 사람이 동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목사가 혼자 행하는 것이 좋다고 객안련은 제안하였다.

6) 세례 대상자 좌석 배치

《목수지법》에서 세례식 시작 전에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세례례식을베플기시작호기전에회원이니러서서찬미호면서그세례를밧을
어른과호히들은강덕압호로오고다른사람들은뒤로안호는거시도호지라이사람들
을압호로보내더婦人班에서그傳道夫人이나다른직원과男子班에서그장로들
이목수를도아줄수잇스나다찬미호고안진후에다른직원은안져서종용히잇고
목수만인도호는거시도호지라³²

성도들이 기립하여 찬양하면서 세례 대상자들을 강대상 앞으로 오게 하고 다른 성도들은 뒤에 앉게 하는 것이다. 이때 부인반(婦人班)에서 권사들과 남자반(男子班)에서 장로들이 목사를 도와 세례 대상자들을 강대상 앞으로 안내한다. 성도들이 모두 착석했으면 권사들과 장로들도 제자리에 앉아 조용히 해야 할 것을 객안련은 강조한다.

³⁰ 《목수지법(牧師之法)》, 314.

³¹ Ibid., 314-315.

³² Ibid., 315.

7) 유아세례 시행 방법

(1) 당 회의 세례 전 부모 문답

곽안련은 유아세례 전 부모 문답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유아세례 시행 방법을 논하고 있다.

어린 〇희세례전에 당회가 그 부모들을 불러서 그례식의 뜻에 대하여 문답함이
도흐니라 그 부모들이 어린 〇희의 세례 뜻과 그중에 조그의 담당하는 거슬도 모
지 섰듯지 아니하니 〇희의 문답하면 섰듯게 할 수가 있고 또 이 〇희의 면교인이 세
례 회한 후에 의외에 부모가 조그의 자녀를 드리라고 다리고 오는 풍속도 업시 할 수
있을지라³³

유아세례 전 당회가 그 부모들을 불러서 유아세례의 뜻에 대하여 문답을 한다는 것이다. 부모 문답을 통해 유아세례의 뜻과 부모들이 담당할 것을 깨닫게 하며, 예배 시작 후 부모들이 당회와 의논 없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나오는 풍속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곽안련은 이런 풍속을 아름답지 못하고 무례하기에 부모들이 미리 목사와 당회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유아세례를 유안(留案)하여 나중에 행할 것을 권한다.

(2) 부모 위치 및 서약

유아세례 시 그 모친이 유아를 데리고 강대상으로 올라오고 그 부친도 강대상 앞에 나온다. 흥미로운 점은 유아의 부친이 사망했을 때 세례 서약에 관한 것이다.

그 〇희의 부친이 죽었으면 녀주는 조그의 모음대로 조우 못하니 그 친족되는 한 사람이나
외가(外家) 에 남자 한 사람이 와서 세례 서약을 하도록 권한다. 세례식에서 서약하게
아니하면 유아세례 후에 모친을 반대하든지 일가(一家)나 외가(外家) 중에 누가 그
아이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기 쉽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곽안련은 세례식을 베푸는
시점에서 유아세례를 받은 이후의 미래 양육까지 관심을 가지고 권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유아의 부친이 사망했을 경우는 그 친족(親族)되는 한 사람이나 외가(外家) 중 남자 한 사람이 와서 세례 서약을 하도록 권한다. 세례식에서 서약하게 아니하면 유아세례 후에 모친을 반대하든지 일가(一家)나 외가(外家) 중에 누가 그 아이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기 쉽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곽안련은 세례식을 베푸는 시점에서 유아세례를 받은 이후의 미래 양육까지 관심을 가지고 권하고 있는 것이다.

(3) 유아세례 나이

곽안련은 《목수지법》에서 유아세례 나이를 6세 혹은 7세로, 어른세례를 14세로 제안하였다.

유아세례를 몇 살 씩 지줄 거슨 작명헌법이 업스나 너무 오래 씩 지기 두리지만
면도흐니 짐작컨대 육칠세 전이도흐니라 이 〇희안에 유 〇세례가 되지 못했으면
좀더 기다려서 십사세 때에 어른세례 주는 거시도흐니라³⁵

그러나 연구한 결과 곽안련은 《목회학》에서 유아세례의 나이를 5세로, 어른세례를 15세로 조정하였다. 유아세례는 예배모범의 지침대로 무고히 지체하지 않도록 하향조정하고, 어른세례는 상향조정하여 더 많은 교육

³³ Ibid., 316.

³⁴ Ibid.

³⁵ Ibid., 322.

기간을 갖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乳兒洗禮를 幾歲세까지로定함이 尙當하나한 問題는 牧師와 堂會가 作定할것이나 禮拜模範九章一條에 無故이지례쳐말나 하였다. 一般은 五歲까지가 可하다하나니 그以上은 十五歲까지 기다려 長年洗禮를 받게 할 것이다.³⁶

(4) 유아세례 순서

곽안련은 착석, 설명, 기도, 기립 후 문답(서약), 세례, 기도의 순으로 유아세례 순서를 제시했다.

그러한 회에 모든 부모가 강대압해와 안존 후에 목수가 간단히 그 부모와 전 교회 유익을 위하여 그례식의 뜻과 그 부모의 직임과 본분과 그 맹세의 뜻을 설명하고 기도 후에 다시 서서 목사의 문에 대로 대답하고 그 후에 목수가 세례를 베풀고 간단한 기도로 그 회를 하나님께 맡길지니라³⁷

곽안련의 유아세례식 순서를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세례 받을 유아의 모든 부모가 강대상 앞에 나아와 앉는다. ② 그 후에 목사가 간단하게 그 부모들과 전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을 위하여 유아세례의 뜻과 그 부모의 직임(職任)과 본분(本分)과 맹세의 뜻을 설명한다. ③ 기도한다. ④ 기도 후 기립하여 목사의 묻는 대로 대답한다. ⑤ 그 후에 목사가 세례를 베풀다. ⑥ 간단한 기도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다.

이때 ②의 설명, ④의 문답, ⑤의 세례 베푸는 문구는 《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 영문판과 한글판 예배모범 제9장에 언급된 것으로 한다. 먼저

³⁶ 곽안련, 《목회학》(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36), 137.

³⁷ 《목수지법(牧師之法)》, 320-321.

②의 유아세례의 뜻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례식은 그리스도께 서세하신 것이니 믿음으로의 롭다 하심을 얻은 인증이 라 구약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는 특권이 잇던 것과 갓치 복음의 은혜에 잇는 성도의 자손의 게이례식 행하는 특권이 잇나니 그리스도께 서서 만국 백성의 계명 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유아들의 게출복 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갓다 하섯으며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믿고 집안에 밋친다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갓치 집안 세례를 베풀었스니 우리의 성품은 죄과로 더럽게 된 것을 인하여 부득불 그리스도의 피로써서며 성신의 권능으로 성결함을 얻어야 한다 할지니라³⁸

그 다음은 ②의 부모의 직임(職任)과 본분(本分)과 맹세의 뜻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목사는 또 한 좌와 갓치 그 부모를 권면하여 삼가 부모의 직분을 다 하라 하대하 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녀를 가라치며 신구약 성경에 가라치거룩한 종교의 원리대로 가라칠 것이니 이 원리의 요령은 우리 교회 신경과 대소요리 문답에 간단히 가라쳤스즉 이 모든 책은 부모의 직분을 도아 주는 것이니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친히 그 자녀와 함씩 기도하며 그 아해 눈압해 충성함과 경건함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 진력하여 주의 성품과 은혜 안에서 장성케 하라 할지니라³⁹

그 다음으로 ④의 유아세례 세 가지 문답을 제시하는 부분이다.

³⁸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74: 《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34), 제9장 4조, 233-234.

³⁹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op.cit., 74: 《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 op.cit., 234-235.

목사사는좌와갓히문하나니라 (一) 그대는이아해를예수그리스도의피로써
 습과성신의새롭게하는은혜의필요를인식하나뇨 (二) 그대는이아해를위하여
 하나님의원약의허락을양모하며자신의구원을위하여진력하는것과갓치이아
 해도우예수그리스도를신뢰함으로구원얻을줄밋나뇨 (三) 그대는지금완전히
 이아해를하나님 셋받치며겸손한마음으로하나님의은혜를의지하며친히경건
 한본분을이아해의게보이기를진력하며이아해를위하여기도하며이아해와
 함 섹 기도하며우리거룩한종교의도리를가라치며하나님의지시하신모든과관
 에서진력하여야이아해를주의양육과교훈에서장성케하기를서약하는노⁴⁰

마지막으로 ⑤의 세례 베푸는 문구를 제시한다.

(四) 그후에는이례식에대하여목사가축복하는기도를올니고아해의성명을
 불너《성부와성자와성신의일함으로세례를주노라 아멘》할것이니라목사가이
 말을하면서물노그아해의머리에세례를주고기도로밋치나니라⁴¹

연구결과 껍안련의 《목수지법》과 《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 영문판과
 한글판 예배모범 제9장을 비교해볼 때 ‘기도’ 순서가 추가된다. 《목수지
 법》은 착석, 세례식 의의 설명, 기도, 기립 후 문답(서약), 세례, 기도의 순
 이지만, 《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 예배모범은 착석, 세례식 의의 설명,
 기도, 기립 후 문답(서약), 기도, 세례, 기도의 순이다. 즉 예배모범 제9장 5
 조 4항에는 문답(서약) 후 ‘기도’가 한 번 더 추가되어 있다. 껍안련의 《목
 회학》에서는 세례식 의의 설명 후 하는 기도와 세례 후 하는 기도의 주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⁴⁰ Ibid., 75: 《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 op.cit., 235-236.

⁴¹ Ibid.: 《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 op.cit., 236.

誓約의 뜻을 解釋한 後에 牧師前뿐아니라 하나님의 眼前임을 覺悟케하는
 祈禱가 있고 施洗하고 다시 하나님께 付託하는 祈禱가 있을 것이다.⁴²

즉 세례식 의의 설명 후 하는 기도는 신전의식(神前意識)을 가지고 하나
 님 앞에(Coram Deo) 기립하여 있음을 각오케 하는 것이며, 세례 후에는 하
 나님 앞에 서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라는 것이다.

8) 성명지편의 사용

유아세례식이나 성인세례식 시작 전에 목사가 종잇조각, 즉 지편(紙片)
 을 많이 예비한다. 각 조각에 세례받을 자의 성명을 하나씩 쓰고, 시작할
 때 먼저 성명지편(姓名紙片)을 각 세례 대상자에게 나눠준다. 세례 대상자
 들이 주머니나 혹은 책 안에 넣지 말고 손에 들고 있게 한다. 목사가 세례를
 주기 위하여 돌아다닐 때에 각 사람이 차례로 목사에게 자기의 성명지편
 을 드리면, 목사는 많은 성명 중에 그의 성명을 잊었어도 그 성명지편을
 보고 세례를 줄 때 바로 성명을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이 하면 목사가
 자기의 명부록책(名簿錄冊)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여도 되며 세례식이 더
 욱 아름다울 것이다.⁴³

만약 세례 대상자가 자신의 성명지편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목사가
 어떻게 호명할지를 껍안련은 흥미롭게 제시했다.

목사가세례를베풀면서홀수잇스면세례일함을브르면도호나혹목수가니졌
 던지세례받을사람이조기받은일함조각을일헛스면호명하기를정지하고그대신

⁴² 껍안련, 《목회학》(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36), 138.

⁴³ 《목수지법(牧師之法)》, 317.

에《하느님의 언약대로 자녀된 자여》부르고 진행하면요느니라⁴⁴

곽안련의 대답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자녀된 자여’ 라고 부르는 것이다. 잃어버린 성명지편을 찾거나 세례 대상자의 이름을 다시 물으면 세례식이 대단히 분요(紛擾)해지기 때문에 경건함을 위한 곽안련의 제안으로 생각된다.

9) 여자의 작명법

만약 여자(女子)가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곽안련은 목사나 당회가 여자의 이름을 지어준 후 세례를 베풀라고 권하고 있다.

시방은조선서남녀로쇼의민적업는더가별노업스나혹엇던곳에노지금 신지녀조의게민적일흠이업스니그리혹경우에는세례를베풀기전에목사나당회가그일흠을지어주노거시도교이런일에더하야방침이만히잇스나그남편의일흠의형렬조와그남편의일흠의형렬조를합하여지으면도흔일흠이될거시오또 기억하기가편하며⁴⁵

민적(民籍)에 이름이 없는 ‘여자’의 이름은 그 남편의 이름의 행렬자(行列字)와 그 남 형제의 이름의 행렬자(行列字)를 합하여 목사나 당회가 작명하라는 것이다.⁴⁶ 또한 지금은 새 시대이기 때문에 교인 중에서도 여자에 대하여 ‘누구의 어머니라 누구의 아내라’ 부르지 말고 각기 저의 이름을 부름이 좋다고 권하고 있으며, 세례시 받은 이름을 생전(生前)에 사용할

⁴⁴ Ibid., 318.

⁴⁵ Ibid., 318-319.

것을 말하고 있다.⁴⁷

10) 강도와 세례의 관계

곽안련은 세례식이 엄숙한 태도를 복잡하고 분주할 것 없이 거행될 것을 말하면서 강도 후에 하는 세례식을 같은 시간에 병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아모강도던지이례식보다더 하다홀수업스니세례식과강도를같은시간에아름다운모양으로행하지못하겠스면그날에강도는정지함이가하니라미리준비잘하고강도말은조끔웬게하면분주한것업시례식과강도를병행할수있고⁴⁸

강도, 즉 설교를 미리 준비 잘하고 조금 짧게 하여 세례식과 강도를 병행하라는 것이다. 곽안련은 강도보다 세례식이 더욱 중요함을 역설하면서 세례식과 강도를 같은 시간에 행하지 못하겠다면 그 날 강도는 정지함이 가하다고 권면하고 있다. 만약 예배시간이 길어져서 강도와 세례식까지 앉아 있지 못하겠다면 강도 후 교우가 기립하여 찬송하면서 세례 대상자를 앞으로 나오게 하는 시간에 나갈 이는 중용히 나가고 남은 사람은 고요히 앉아서 나중까지 세례식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⁴⁶ 정장복 교수는 “한국교회 최초의 실천신학 교수 곽안련의 《목사지법》에 나타난 예배의 신학과 이론”이라는 글에서 다시금 오류를 범했다. 《목사지법》에서는 ‘여자’(女子)의 작명법을 거론하고 있는데 정장복 교수는 ‘유아’(乳兒)의 작명법으로 착각한 것이다. 다음 책을 참고하여 확인하라. 예배모범에 정장복 외 4인, 《2006년도 교회력에 따른 예배와 설교 핸드북》(서울: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5), 54.

⁴⁷ Ibid., 319.

⁴⁸ Ibid., 320.

11) 세례식 순서와 분간(分悭) 제안

곽안련은 ‘유아세례’ (乳兒洗禮), ‘장자세례’ (長者洗禮, 어른세례)와 ‘유아의 세례 받았던 자를 영접하는 예식’ (乳兒의 洗禮 받았던 者를 迎接하는 禮式) 순으로 제안했다. 즉 유아세례, 어른세례와 입교예식 순이다.

세례를베프는날에오히들이오리기되리기어려우니乳兒洗禮어린오히 세례를몬져베프는거시도요……그후에長者洗禮어른세례와유아의세례 받았던자를영접하는례식은례비모범칙의규측대로홀지니라⁴⁹

곽안련은 유아세례를 먼저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오래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유아세례식을 행한 후 교회가 또 찬양하면서 유아를 안은 모친들이 집으로 돌아가든지 예배당 후문 앞에 가서 앉아 있기를 원하면 조용히 함이 가하다고 말한다.⁵⁰ 찬양 후 자리가 정리되고 정숙해지면 어른세례와 입교예식을 행한다.

《목수지법》에서 흥미로운 것은 세례식 사이에 찬양의 시간을 두어 교우들이 ‘분간’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분간’이란 ‘나누어 구별함’이란 뜻으로, 유아세례와 어른세례 중간에 짧은 시간을 두어 구별되게 하고, 유아세례를 받아 성년이 된 자와 어른세례 대상자 사이도 구별되게 한다.

이갓치그유아세례베프는것과어른세례베프는사이에서간이좀잇스면교우

⁴⁹ Ibid., 320-321.

⁵⁰ 유아세례식 중 첫 번째 찬양시에는 유아세례 대상자들을 강대상 앞으로 안내하였다. 두 번째 찬양시에는 유아세례를 마친 후 유아세례 대상자들이 복귀하는 시간을 주며, 어른세례와 입교예식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들이그세례의분간을서도게홀지라또유아세례를받았던자와어른세례받았는자 사이에도분간하는거시도호니라⁵¹

곽안련은 예배모범 규측대로 어른세례와 입교예식을 시행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순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곽안련이 추천한 예배모범 ‘제10장 입교예식’에 의하면 어른세례와 입교예식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회중 앞에 기립, 유아세례 받고 성년이 된 자를 위한 목사의 설명, 어른세례 대상자를 위한 목사의 설명, 문답, 유아세례를 받아 성년된 자들을 위한 권면, 어른세례 대상자들을 위한 세례집례, 기도의 순으로 진행된다.

첫째, 유아세례 받고 성년이 된 자를 위한 목사의 설명이다. 성년이 되어 자신의 신앙을 공식선언하는 날에 당회의 허락을 얻어 교회에 입회하는 자들이 회중 앞에 서면 목사는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아세례를받음으로어릴새부터교인이되고언약의허락에대하여후사가 되여그부모의엄 한맹서로하나님 의바친자중에모모씨가지금밋음의권속에서자기유업에관한책임과특권을담부할자되기를원함으로당회가그리스도를밋는것과성찬에서주의몸을분변하는지식을문답하아가납호라⁵²

둘째, 어른세례 대상자를 위한 목사의 설명이다.

세례는우리를그리스도의게접침과주와합하는표와인치는것이니세례를받고하나님의교회에입교하기를원하는모모씨를당회가거룩하신은혜받은

⁵¹ 《목수지법(牧師之法)》, 321.

⁵² Constitution of Presbyterian Church of Chosen, op.cit., 76; 《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1934), op.cit., 238-239.

일에대하며희의경력과그리스도를받은일을사실하야인명하고로지금성도와
동반되는것을환영하며감사히녁이노라⁵³

셋째, 문답이다. 유아세례를 받고 성년이 된 자들과 어른세례 대상자들 모두가⁵⁴ 공식으로 신앙고백을 위해 이 자리에 있음을 목사가 각인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문답한다.

“공식으로신앙고백을하라고이자리에참여한그대들은다좌의선언과허락을승인하야하나님과그의교회로더부러엄중한언약을맺하는줄알지여다(一) 그대들이하나님압제죄인인줄알며당연히그의진로를찾을만하고그의크신자비하심에서구원얻을것외에소망이업는자인줄아나뇨 (二) 그대들이주예수그리스가하나님의아달되심과죄인의구주되시는줄을밋으며복음에말한바와갓치구원하실이는다만예수 쏘 이신줄알고그를밋으며그의게만의지하나뇨 (三) 그대들이지금성신의은혜만의지하고그리스도를찾는자가되여그대로힘써행하며모든죄를바리며그의가라참과모범을싸라살기를작명하며허락하나뇨 (四) 그대들이교회의관할과치리를복종하고그 결하고화평함을일우도록힘쓰기로허락하나뇨”⁵⁵

문답 이후에는 ‘엄중(嚴重)한 의무(義務)의 요긴(要緊)한 것을 담부(擔負)한 자들’ 즉 유아세례를 받고 성년이 된 입교자들에게는 짧게 권면하고,

어른세례 대상자들에게는 세례를 베풀고 기도로 마친다.

12) 교회원이 되는 시기

어른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은 날부터 교회원(教會員)이며, 유아세례를 받았던 자는 출생 시부터 교회원이 되지만 입교예식을 한 날에 자기의 맹세를 자기가 담임하게 되는 것이다.⁵⁶

13) 이명증서로 이래한 교인 영접

유아세례, 어른세례와 입교예식을 행한 다음 바로 이명증서(移名證書)로 이래(移來)한 교인을 영접한다.

이명서호교인이잇스면그세례식을행호지바로후에호명호여니러서케하고
온교인으로영접케호는거시도호니라⁵⁷

우선 목사가 호명하여 기립하게 하고 온 교인으로 영접하게 한다. 광안련의 《목회학》에서는 이래한 교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세례를 받을 때의 서약과 같은 언약을 다시 말하게 할 수 있다고 기술한다.

牧師가 公衆앞에 起立케한後에 敎友의게 廣告아야 歡迎의 意를 表示케하
고 必要한 境遇에는 玆로 領洗하던때의 言約과 彷彿한말을 다시 하게할 수 있
다⁵⁸

⁵³ Ibid., 《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 op.cit., 239.

⁵⁴ 광안련, 《목회학》(경성: 조선야소교사회, 1936), 138. 《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의 예배모범 제10장 5조 1항은 유아세례를 받고 성년이 된 대상자들을 위한 것이며, 제10장 5조 2항은 어른세례 대상자들을 위한 것이며, 제10장 5조 3항은 양군(兩群) 대상자들에게 동일(同一)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⁵⁵ Ibid., 76-77: 《조선 예수교장로회 헌법》, op.cit., 240-241.

⁵⁶ 《목수지법(牧師之法)》, 321.

⁵⁷ Ibid., 321-322.

14) 학습인 영접 문제

학습인(學習人) 영접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껍안련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엇더호 교회안에서노이일을행호후에그새학습의일흠랑독호고니러서셔밋
노생활을시작호약도를호라호나엇더호목사의말이학습이아직완전호신자가되
지못호엇스니공식으로이처럼교회원으로영접호면교회가그사롬에디호야담당
을너무만히호야안된다호니그목사의생각에는그학습들을당회앞에서받을거
시나공식으로노호지말고서천스히호거시도흔줄노아니라이말은혹가하나
利害로말호면공식으로영접호여도害호업고이치호호면그레가만홀지라각
교회목사와당회가의론호여이런일을작명호지니라⁵⁸

우선 껍안련은 한 교회의 사례를 들고 있다. 그 교회에서는 이명증서를 가지고 이래한 교인을 영접한 후에 학습인(學習人)의 이름을 낭독하고 기립하여 믿는 생활을 시작할 약조(約條)를 한다. 그러나 어떤 목사의 말은 학습인이 아직 완전한 신자가 되지 못하였으니 공식으로 교회원으로 영접하면 교회가 학습인에 대하여 담당할 짐이 너무 많이 있어 안된다고 한다. 그 목사의 생각에는 학습인들을 당회 앞에서 받을 것이나 공식으로는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지만, 이해득실로 따지면 공식으로 영접하여도 해는 없고 이가 많을 것이라고 껍안련은 말한다. 그러므로 각 교회 목사와 당회가 의논하여 학습인을 공식으로 교회원으로 영접할 것인지 아니면 당회 앞에서 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⁵⁸ 껍안련, 《목회학》(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36), 138.

⁵⁹ 《목수지법(牧師之法)》, 322.

껍안련의 《목회학》에서는, 학습인에게는 세례를 받는 자나 임직자에게 시행하는 질문을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표시하게 하며 학습하기로 노력하겠다는 뜻만 볼 것을 강조하고 있다.

學習敎人이 되려하는者를 어느禮拜會時에 敎會公衆앞에 起立케하고 信仰生活의 學習願不願을 더욱 探索할일과 自己를 하나님께 드릴일을 公式으로 表現케할일이다. 學習人에게는 受洗人과 任職者의게 施行하는 發問을 하지 말것이니 더회게 그같은 難問을 課할理由가 없고 다만 信仰生活을 表示케하며 學習기로 努力하겠다는뜻만 볼것이다.⁶⁰

15) 세례 시간과 장소

세례와 성찬은 공예배 시 집행되며 보통 ‘교당’(敎堂)에서 하는 것이 좋지만, 이 두 예식을 당회의 결의대로 집안에서도 행할 수 있다고 껍안련은 권하였다.⁶¹ ‘교당’으로 가지 못하는 어른이나 약하고 병든 아이가 세례를 받을 경우에는 본가(本家)에서 행할 수 있었다. 세례는 흔히 ‘주일 대예배회’ 말에 행하지만, 특별시간(特別時間)을 내어 주일오후 5시나 해가 떨어지는 일락시(一落時)에 행하는 것도 합당하다고 껍안련은 생각하였다.⁶²

⁶⁰ 껍안련, 《목회학》(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36), 138-139.

⁶¹ 《목수지법(牧師之法)》, 322-323.

⁶² Ibid., 323.

16) 세례의 횟수

곽안련은 세례의 횟수와 관련하여 전임목사가 있는 교회는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좋으며, 혹 6개월에 한 번씩 행할 것이며, 전임목사가 없는 순행구역(巡行區域)에서는 일 년에 한 번씩 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⁶³ 곽안련은 세례를 너무 자주 베풀면 미숙한 자를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보통 6개월에 한 번씩만 행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했으며, 세례를 베풀 후에 그 성명을 즉시 명부록(名簿錄)에 올려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다.⁶⁴

17) 세례 대상자 교육 강조

세례와 성찬을 베푸는 날에 목사가 그 형편을 인하여 기회를 얻어 가장 중대한 문제를 강도할 수 있으며, 그때에 엄숙한 중에 교우들이 다른 예배 때보다 더욱 들을 사상이 생기고 교수함을 더 잘 받는다고 했다.⁶⁵ 이는 《목수지법》에서 세례 시에도 세례 대상자 교육에 대한 강도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목수지법》에서는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을 위해 “긴요한 도리”에 대하여 아는 것이 부족할 때에는 학습의 기간을 거쳐 세례자 교육 후 세례를 줄 것을 피력하고 있다.

“로마교회서온자도그러한지라당회가시험하여서리치를알고진실히밋은자로알면그냥세례인으로밋을수가잇고긴요한도리에딛어야아는거시부족한줄노알면얼마동안학습으로잇다가세례를다시주던지어린새에세례밋은자처럼물세례업시땡세로만밋을수잇느니라”⁶⁶

또한 《목수지법》에서는 세례의 형태를 논하면서 침례를 받기 원하는 자에게 세례의 속뜻을 잘 교육하면 결과적으로 ‘물을 떨어뜨리는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반복적인 세례 대상자 교육을 통해 세례의 의의를 밝히 알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보통예수교회로말하면물을 썬러트리논방침대로하나누구던지생각하기를 침례회와차이온몸에세례를밋어야한다하고목수가교육하여세례의속뜻을7로친후라도그러한세례를청하면감리회나장로회가그러한세례를허락하고목수가그대로베풀지라도척망이업스리라그러하나백번중에구십구번이나목수가그사람을교육을잘하면물을 썬러트리논세례를밋을지라⁶⁷

곽안련은 《목수지법》에서는 언급이 없었지만, 그의 저서 《목회학》에서는 세례 대상자 교육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牧師가 洗禮를 施行할때마다 以上の 意義를 分明히 說明할것이니 一般이 洗禮의 意義와 有益을 알것이다. 洗禮는 平生에 一次만 領受하는 것이니 領洗하는 當者が 日後에는 그 本意를 知覺한다 하여도 領洗當時에 會得치못하면

⁶³ Ibid., 323-324. 곽안련의 《목회학》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여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에 세례를 주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였으며, 학습은 1년에 2차, 3차 실시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다음 책을 참조하라. 곽안련, 《목회학》(경성: 대한기독교서회, 1955), 143.

⁶⁴ Ibid., 324.

⁶⁵ Ibid., 307.

⁶⁶ Ibid., 312.

⁶⁷ Ibid., 313-314.

⁶⁸ 곽안련, 《목회학》(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36), 134.

遺憾한 일이다.⁶⁸

상기했던 세례의 다섯 가지 의의를 목사가 세례를 집행할 때마다 분명히 설명하라는 것이다. 즉 세례는 예수께서 대신해서 흘리신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다 씻게 된 표요, 하나님의 식구로 입회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적하는 표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표요, 성령께서 복을 더 많이 주시고 자 하는 표이며, 세례 대상자가 맹세하여 몸을 드려서 자기의 뜻대로 다시 살지 아니하고 예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표임을 세례 대상자에게 확실하게 교육시키라는 것이다. 세례는 평생에 단회적으로 한 번만 받는 것이므로 세례의 의의와 유익을 받는 그날에 모른다면 유감스러운 일임을 말하며 세례 대상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4. 결론

《목수지법(牧師之法)》은 한국 장로교 최초의 목회학 저서로서 당시 한국의 문화와 상황을 상당히 반영한 실천적, 상황적, 사례 중심적, 구체적인 예배 지침을 제시한 책이다. 이 연구에서는 예배당이 좁고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점을 배려하여 고정된 ‘세례반’(洗禮槃, Baptismal Font)이 아닌 이동이 용이한 ‘물그릇’ 즉 ‘세례기’(洗禮器, Baptismal Vessel)로 대체하여, 세례 대상자는 자리에 앉아 있고 세례식을 집행하는 목사가 장로와 함께 움직이며 세례를 주는 곽안련의 세례 집행 방안, 세례 대상자에게 성명지편(姓名紙片)을 나눠주는 방안, ‘삼번식’(三番式)과 ‘일번식’(一番式)의 문제 해결 방안, 유아의 부친이 사망했을 경우는 그 친족(親族) 되는 한 사람이나 외가(外家) 중 남자 한 사람이 와서 세례 서약을 하는 방안 등을 소개했다. 특히 세례와 성찬을 베푸는 날에 목사가 그 형편을 인하여 기회를 얻어 가장 중대한 문제를 강도(講道)할 수 있으며, 그때에 엄숙한 중에 교우들이 다른 예배 때보다 더욱 들을 사상이 생기고 교수함을 더 잘 받는다

고 했다.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을 위해 “긴요한 도리”에 대하여 아는 것이 부족할 때에는 학습(學習)의 시간을 거쳐 세례자 교육 후 세례를 줄 것을 피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목수지법》은 세례 대상자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자는 한국의 1004동의 군인교회들이 세례 대상자 교육에 박차를 가하여 비전 2020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로

행진곡풍으로

작사 군선교연합회
작곡 김 민 식

1. 빛 으 로 감 옷 입 은 순 결 한 젊 은 이 들 을 보 소 서
2. 힘 차 게 행 진 하 며 노 래 하 는 청 년 들 을 보 소 서
3. 민 음 의 백 성 들 아 주 님 이 추 수 궂 을 부르 신 다

오 주 여 저 들 의 심 령 에 임 하 시 읊 소 서
내 게 말 겨 주 신 생 명 과 물 질 을 다 바 처

당 신 의 강 한 팔 이 저 들 을 불 드 시 면 -
승 리 의 대 장 예 수 저 들 을 통 치 하 사 -
복 음 의 햇 불 되 어 아 깎 없 이 타 리 라 -

민 족 이 경 성 하 리 이 다 세 계 가 진 동 하 리 이 다
교 회 를 뜨 겁 게 하 소 서 사 회 를 깨 끗 케 하 소 서
주 님 다 시 오 시 기 전 에 인 류 구 원 밀 알 되 리 라

이 땅 위 에 태 어 나 서 할 일 도 많 다 만

예 수 의 - 이 름 으 로 십 자 가 군 병 만 드 시 어

어 둠 을 몰 아 내 소 서 세 상 을 정 복 하 소 서
문 화 를 정 케 하 소 서 비 전 을 품 게 하 소 서
군 대 를 축 복 하 소 서 민 족 을 구 원 하 소 서

새 천 년 참 된 평 화 의 방 패 삼 아 주 소 서
통 일 된 조 국 의 빛 소 금 되 게 하 소 서
인 류 가 하 나 되 는 날 큰 영 광 받 으 소 서

비전 2020을 이루라

작사 군선교연합회
작곡 김 민 식

이 민 족 - 을 향 하 신 - 하 나 님 의 계 획 중 심 에 -
수 백 만 - 의 생 명 을 - 우리 통 해 살 리 신 주 님 -

청 년 을 - 살 리 라 는 - 소 중 한 부 르 심 이 있 어 - 선
불 타 는 - 가 슴 속 에 - 억 만 의 민 족 을 품 고 서 - 죽

교 의 큰 물 결 이 - 군 대 를 뒤 덮 었 도 다 - 그 -
도 록 충 성 하 라 - 심 령 을 인 도 하 시 네 - 성 도

역 사 를 위 하 여 - 기 도 가 하 늘 을 - 찢 - 렸 도 다
여 교 회 들 이 여 - 영 적 인 전 쟁 에 - 너 를 부 르 다

이 귀 한 영 혼 들 을 깨 워 내 음 성 을 들 게 하 라 -

저 젊 은 영 혼 들 을 살 려 내 백 성 이 되 게 하 라 - 오

(남성) 라 너 하 나 님 의 사 람 아 - 가

(여성) 비 전 2 0 - 2 0 을 이 루 라 -

라 너 하 나 님 의 사 람 아 -

비 전 2 0 - 2 0 을 향 하 여 -

아,비전 2020이여!

빠르고 힘차게

작사 군선교연합회
작곡 김 민 식

나라와민-족을 사랑하라는 소명을 안고 바른
사랑과 섬김으로 미래성도를 잉태하 면 서 빛나

신앙으로-필승의 군대를-만들어왔네 군과민
은청년들-수없는세례로-구원하였네 온백성

죽인류복을 화를 향한-비전 2020
이 환웃입고 두손드는-이-천이십년

복음으로 통일된 조국을 꿈꾸며 우리는 달린다
가슴 벅찬 그날을 심장에 새기며 우리는 일한다

믿음의-반석을 딛고 소망의 기를 높여라 담대하
믿음의-반석을 딛고 소망의 기를 높여라 전진하

라-두려워 말라 주님 말씀하신다
라-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하신다

비전 2020 위하여 기도하라 생명을 걸
비전 2020 위하여 찬성하라 생명을 걸

고아-아비전 2020이여

판 권
소 유

군선교신학 9

2011년 10월 15일 인쇄

2011년 10월 20일 발행

발행처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주소 | 서울 종로구 효제동 45번지 군선교연합회관

TEL | 02-744-2661~4, 02-3675-2020

홈페이지 | [http : //www.v2020.or.kr](http://www.v2020.or.kr)

E-mail | meak@v2020.or.kr

제작처 | 쿼란출판사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84-3

TEL | 745-1007, 745-1301, 747-1212, 743-1300

영업부 | 747-1004, FAX/745-8490

본사평생전화번호 | 0502-756-1004

홈페이지 | <http://www.qumran.co.kr>

E-mail | qumran@hitel.net

qumran@paran.com

한글인터넷주소 | 쿼란, 쿼란출판사

등록 | 제1-670호(1988.2.27)

값 12,000원

* 이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책은 교환해 드립니다.